

2022 06

Vol. 184

이
것
+
이
것
=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이달의 아티스트



서상현

서커스 예술가

—— 서상현은 2015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개관공연인 극단 '배낭 속 사람들'의 <별레, 멈춘 시간, 흐르다>로 데뷔했다. 같은 해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커스 워크숍 <Jumping Up>을 통해 서커스 기예를 접하면서 서커스 예술을 시작했다. 2017년 12월 예술가로서 생존하고 예술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공연창작집단 사람'을 결성했다. 각 개인의 심상에 집중하면서 서로 온기를 나누고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작업을 추구한다. 창작의 주요 키워드는 '삶'이며 의지를 지닌 행위를 통해 작품을 완성하고 있다. 동화와 어린이 그림책을 좋아한다. 천천히 산책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작업을 추진하는 영감과 힘을 얻고 있다.

호기심과 호승심으로 시작한 서커스 예술. 세상의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화려한 결과 뒤에는 반드시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 따른다. 이러한 작업은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쳐 나의 삶을 수행시키고 있다.

나는 줄을 오르내리며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줄은 화려하지 않고 투박하다. 줄 위에 오르는 행위자를 치장하거나 감추어주지 않는다. 행위자의 숙달 정도와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렇기에 스스로가 원하는 수준의 행위를 펼치고 작품을 만들고자 한다면 답은 수행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 단순한 육체적 운동을 넘어선 삶의 수행으로 확장된다. 나는 서커스가 나의 영과 육을 성장시키며 나와 세상에 덕지덕지 붙어 있던 갖가지 오해와 불순물을 차근차근 걷어내

는 원동력이라고 말하고 싶다.

최근 30m 밧줄을 크레인에 매달아 오르내리는 거리예술 공연을 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인물의 행위를 통해 살아가는 것의 본질을 함께 바라보고자 했다. 30m 밧줄을 오르내리며 내가 경험한 것은 몸의 훈련 정도와 상태에 따라 마음의 힘도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이었다. 언제든 지 위험해질 수 있는 높이에 놓인 몸은 어느 때보다도 솔직하다.

훈련이 부족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산만한 상태에 놓인 몸으로는 두려움을 견디기가 어렵다. 그저 오르는 과정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마음만 크다. 하지만 준비된 상태에서의 오름은 나를 여행시킨다. 몸에도, 정신에도 자신감이 붙고 순간에 몰입하게 되며 영혼은 한층 고양된다. 때로는 자신감에 취해 스스로 과장하고 오해하는 순간도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다시 줄 위에 놓이면 속일 수 없는 민낯과 만나게 된다. 거부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긍정하게 된다. 그렇게 다시 수행이 반복된다.

줄을 통해 삶을 바라보고, 삶을 통해 줄을 바라본다. 그렇기에 나는 여전히 수행의 과정이 즐겁고 흥미진진하다. 단단해지는 과정을 겪으며 작품과 삶의 격을 높이기 위해 이어지는 투쟁은 새로운 흥미를 일깨운다. 비슷하지만 그 깊이를 달리하는, 나선형의 운동과 같은 순환이 이뤄진다. 이는 우리가 사는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한다.

서커스 예술과 함께 나의 삶과 작업은 나선형의 여행을 하고 있다. 보태자면, 자연의 섭리를 닮길 바라며.

Contents

2022 06 Vol. 184

커버스토리

00 — 01

이달의 아티스트 서상현



테마 토크

문화예술로 보는 디아스포라, 낯선 땅에서 존재의 가치를 묻다

칼럼

06 — 07

전 세계 문화예술의 대지를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 디아스포라

에세이

08 — 09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정체성에 대하여

리포트

10 — 13

시대를 초월한 디아스포라 작가 소개

인터뷰

14 — 15

이혁상 디아스포라 영화제 프로그래머

이슈+서울

이슈 1

16 — 19

교과서 음악/국악교육의 사회적 함의에 대한 근원적 질문

이슈 2

20 — 23

지구와 예술_handshaking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이창기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김영민, 연재인, 오니트(주)(장보영, 장영수)

객원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디자인 오니트(주)(장가은, 신재현)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124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agazine

발행일 2022년 5월 31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트렌드+서울

문화인	24 — 29
드래그 아티스트 모지민	
정연석의 서울 산책	30 — 33
서울무용센터	
공감 1	34 — 35
연극 <기후비상사태: 리허설>과 <벚꽃동산>	
공감 2	36 — 37
전시 <장-미셸 오토니엘: 정원과 정원>과 <공공>	
서울 할나	38 — 39

이야기+서울

지하 미감 어드벤처	40 — 41
서울 지하철과 동물들	
최재훈의 씨니컬	42 — 43
Cine_Col: Cinema Column	
이정곤 감독의 <낮아웃>	
윤중강의 국악 실록	44 — 45
신쾌동과 한갑득	

웹진 [비유]	46 — 47
어린이의 권리	
웹진 [연극in]	48 — 49
하우스어서, 배우와 관객 사이의 존재	
웹진 [춤:in]	50 — 51
스포츠로서의 춤, 예술에 점수 매기기	
6월의 서울문화매뉴얼	52 — 58
편집후기	60



© 모지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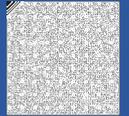
모지웅
서민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예술로 보는 디아스포라, 낯선 땅에서 존재의 가치를 묻다





1 포 킴 <무제 Untitled> 캔버스에 아크릴 | 182.88x152.4cm | 1999

2 포 킴 <소녀와 별 Girl and Star> 캔버스에 테이프, 아크릴 |

91x122cm | 2009

전쟁, 망명, 입양, 이민, 국제결혼, 일자리 등
저마다의 이유로 조국을 떠나 타국에 정착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 그리고 난민의 발생으로
디아스포라는 더이상 특정 민족이나 이민자를 뜻하는
말이 아닌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어디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소외감,
이방인으로서 겪는 무시와 차별, 편견과 혐오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다.

끊임없는 정체성에 대한 물음, 다양한 문화가

충돌하고 뒤섞이며 발현된 디아스포라의

이야기가 지금 각광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디아스포라 예술의 존재 이유

전 세계 문화예술의 대지를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 디아스포라

팬데믹 일상에서 ‘디아스포라’의 삶이 주목받고 있다. ‘디아스포라(diaspora)’는 이스라엘 건국(1948) 이전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공동체)을 가리키다가 점차 그것의 역사·문화적 맥락이 심화되고 확장되면서 자신 고유의 삶의 터전을 떠나 낯선 타방에서 삶을 살고 있는 존재를 두루 포괄하는 용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이민진의 장편소설 《파친코》 중

“사람이 태어난 곳은 고향이었는데 사람이 묻히는 땅은 뭐라고 하느냐?”

한진의 단편소설 〈그 고장 이름은?〉 중

“근대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한 세계 분할과 식민지 쟁탈전 이후, 전 세계에서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머금고 태어난 땅을 뒤로했을까.”

서경식의 산문집 《디아스포라 기행》 중

한국 사회와 디아스포라의 관계

■ 디아스포라의 삶에는 온갖 정치·사회적 어려움이 난마처럼 뒤엉켜 있다. 어떤 존재가 자신이 태어난 곳, 그것도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삶의 존재 가치를 보증받지 못한 채 다른 국가의 주변인으로서 정치·사회적 소외를 감당해야만 하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는 여실히 보여준다. 디아스포라의 이러한 삶은 앞에 언급한 문구에서 헤아려볼 수 있다.

최근 한국계 미국 작가 이민진의 장편소설 《파친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Apple TV+에서 방영되는 것을 계기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존재에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



와 '디아스포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숙고하게 한다. 앞서 언급한 인용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동안 한국 사회가 국민국가의 낯익은 프레임에 얼마나 안주하고 있었는지, 근본적 자기비판이 요구된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그리고 남북 분단의 숨 가쁜 역사 속 전 세계의 낯선 땅에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간 코리안 디아스포라(주로 일본, 중국, 옛 소련의 중앙아시아, 아메리카 대륙 등)의 삶에 대해 한국 사회가 가진 정치·역사적 입장은 어떠했는가. 그동안 한국 사회는 한반도를 에워싼 국제사회의 역학 관계 아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삶을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의 프레임으로서 특별하게 인식하지 않았는가. 해묵은 혈연 중심의 내셔널리즘은 물론 분단 체제에 속박된 채 남과 북의 체제 경쟁 측면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정략적으로 이해하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이민진(재미 한인)과 한진(재소 고려인)과 서경식(재일 조선인)의 문학적 발언은 한국 사회를 향해 제기하는, 좁게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넓게는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가 겪어온 삶의 난경을 매우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다.

국민국가의 폭압과 궤를 같이하는 해방의 서사

■ 이처럼 디아스포라와 관련한 문화예술은 어떤 특별한 것이 결코 아니다. 록 밴드 퀸의 보컬리스트 프레디 머큐리도 엄밀히 말하자면 디아스포라와 관련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머큐리의 가계系는 파르시, 즉 조로아스터교로서 아버지의 고향은 인도인데, 머큐리는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작은 섬 잔지바르

에서 태어나 인도 뭍바이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이후 영국으로 이주해 그곳에서 록 그룹 퀸의 보컬리스트로 세계인의 주목을 끌었다.

이렇듯 머큐리의 국적은 영국이지만 그의 음악적 삶은 국민국가 영국에 구속되지 않는다. 머큐리는 그의 삶에 바탕이 되는 디아스포라 정체성에 기반한 마성적 음악 세계를 창조했다. 그래서 퀸과 함께한 머큐리의 주옥같은 노래들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감동을 배가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대중에게 새롭고 깊은 인식적 충격과 감명을 안겨준 문화예술의 경우 디아스포라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아프리카 흑인 디아스포라가 대중음악과 댄스 등 전 세계에 미친 예술적 파장, 유대인 및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가 서로 다른 정치·역사적 입장에서 축적한 예술적 성취, 그리고 전 세계의 다양한 디아스포라적 존재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궈내고 있는 빼어난 예술적 성취는 세계 문화예술의 대지를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디아스포라 예술의 성취 도정에서 국민국가의 정치·사회적 폭압과 모순이 드러남과 동시에 인류의 참다운 행복을 향한 해방의 서사가 예술적 상상력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글 고명철, 문학평론가



당신의 수식어는 무엇인가요?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정체성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자 사람들이 다시 이동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세계 일주를 꿈꾼 이는 다시 비행기에 오를 것이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이 해외여행을 떠나 어느 도시를 거닐다가 갑자기 현지에서 사는 한인(韓人)을 마주쳤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과 비슷한 외모를 지녔지만 표정과 자세에서 왠지 모를 이국적 정취를 풍긴다. 그 역시 살짝 당황하지만 모국에서 온 것 같아 보이는 당신에게 (한인 특유의 옷차림새, 표정, 제스처는 해외에서 분명 눈에 띈다) 우호적 눈길로 인사를 건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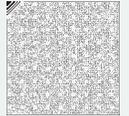
한반도 안과 밖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코리안’

■ 나는 쿠비에 배낭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쿠바 한인 3세를 만나 인생의 축이 바뀌는 경험을 했다. 앞의 시나리오와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모국인 한국이 아닌 미국에 사는 또 다른 해외의 한인이라는 점이다. 혹시 대한민국 밖 한인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아마 없지는 않을 것이다. 먼 친척 중 누군가가 외국에 산다거나, 교과서에서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십시일반 모금을 했던 선조에 대해 배운 기억이 있거나, 아니면 TV를 통해 해외에서 국위 선양을 하는 동포에 대한 소식을 모두 한 번씩 접해 봤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궁금하다.

흔히 ‘재외동포’라고 일컫는 그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듯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다. 나는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유년기를 보냈기에 한국 정서에 친숙하고 한국어를 무리 없이 구사할 수 있지만 미국 내 많은 재미 한인 친구는 그렇지 않다. 현지화돼 한국말이 미숙하고 한국의 문화와 시사에

밝지 못하다.

대한민국에 사는 이들이 스스로 부르는 말인 ‘한국인’은 아쉽게도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정된 단어이다. 영어로 ‘코리안’이라는 공통 호칭이 있지만 공교롭게도 우리말로는 재외동포 전체까지 아우르는 단어가 없다. 한반도 밖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조선족, 자이니치(재일교포), 고려인, 재미교포, 재독동포, 한인 입양아, 탈북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들어온 타 국가 출신의 이민자도 온전한 한국인으로 불리지 않는다. 외국인, 이주민, 다문화, 결혼이주민 등의 수식어에 머물 뿐이다. 나는 스스로에 대한 수식어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고민하던 중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접했다. 처음에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을 지칭하는 표현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떠나 미국에 살면서, 여러 국가에서 자신을 코리안으로 소개하는 다양한 친구와 마주치면서, 디아스포라가 유대인 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인 본국을 떠나 타지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를 통칭하는 것임을 알게 됐다.



쿠비에서 쿠비 한인들과 촬영했다.

디아스포라,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존재하는 주체

■ 이들에 대해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발레리 한Valeriy Khan 교수는 어느 석상에서 “우리 디아스포라는 결국 사라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어둡지만 희망을 염원하는 그의 질문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 민족의 문화, 언어, 역사, 기억, 존재가 본국을 떠나며 희미해져 없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발레리 한 교수의 질문을 곱씹다가 나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봤다. “디아스포라가 실제 존재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인식, 담론, 이야기가 부재한다면 그들이 과연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

단어 ‘디아스포라’가 한반도 안 사람들에게 생소함과 웬지 모를 위화감을 주는 것처럼, 나 또한 한반도 밖 코리안으로서 직접 디아스포라를 체험하고 그 개념을 구체화하기 전까지는 디아스포라에 대해 무지했다. 내가 그 일원이었음에도 말이다.

재외동포와 디아스포라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하다. 언제, 왜 한반도 밖으로 향했는지 각자의 이유가 다르고 자신이 정착한 현지 국가의 정치 체제, 경제 상황, 민족 구성에 따라 자신을 인식하는 양상이 다르다.

하지만 한반도를 떠나면서부터 이민자 혹은 이민자 자녀, 소수자, 이방인이 됐던 그들의 경험은 비슷하다. 낯선 환경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묻고, 자신의 수식어를 찾는 몸부림이 많아 있다. 그래서 더욱 궁금해졌다. 그들과 나의 존재를 설명하는 여러 수식어 중 ‘코리안’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까? 한반도 밖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대한민국의 한국인, 아니 한반도 안의 모든 이와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할까?

나는 디아스포라를 나라 밖에 있는 어떤 대상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존재하는 주체로 인식한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충돌과 혼합으로 발현되고 내재된 그들의 디아스포라라는 정체성, 수식어에 매료됐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재외동포의 존재, 그들의 정체성, 디아스포라적 사유 방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글 사진 전후석 <헤로니모> <초산> 감독, 《당신의 수식어》 저자



경계에 선 예술가의 이야기

시대를 초월한 디아스포라 작가 소개

최근 미국 출판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여성 작가와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1세대 디아스포라 작가를 소개한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 시기, 이민 자유화 이후인 1970년대, 다문화 가족이 증가한 1980년대. 태어난 시기만큼 이주를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른 작가들에게서 긴 시간을 관통하는 보편적 디아스포라 정서를 감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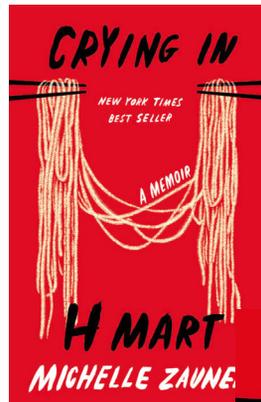
한국계 미국인: 미국인인 듯 미국인 아닌

미셸 자우너와 캐시 박 홍은 각기 펴낸 책이 미국에서 잇따라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과친코》를 쓴 이민진과 함께 주목 받고 있다.

미셸 자우너 | Michelle Zauner

《H마트에서 울다 Crying in H Mart》

■ 인디 뮤지션이자 작가인 미셸 자우너는 백인 미국인 아버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반부’ 한국계이다. 1989년 3월 서울에서 태어나 생후 9개월에 인구 대부분이 백인인 미국 오리건Oregon주 유진Eugene으로 이주했다. 《H마트에서 울다》(2021)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 문화를 접하게 해준 엄마와 이모를 암으로 떠나보내고, 엄마와 함께 장을 보던 H마트에서 한국 식재료를 구입해 직접 요리해 먹으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다. H마트는 미국 14개 주에 70개의 매장이 있는 미국 속 한국 대형 식료품점이다. 자우너는 책에서 “나는 두 세계 중 어느 세계에도 온전히 속할 수 없었다. 노상 반만 인정받고 받은 이



《Crying in H Mart》,
《H마트에서 울다》





방인 취급을 받기 일쑤였다”고 썼다. 자우너는 미국에 살면서도 생일에 미역국을 먹고, 삼겹살을 구워 찜을 싸 먹고, 간장계장 같은 한국 음식을 먹는다. 그는 엄마가 살아 있을 때 함께 방문했던 한국으로 신혼여행을 와 남편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조각을 맞춰나간다. 《뉴욕타임스》에서 “디아스포라적 삶의 반향을 보여준 회고록”이라고 평한 이 책은 2022년 2월 말 한국에서도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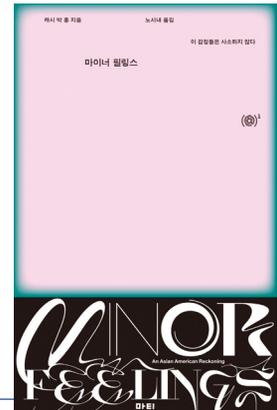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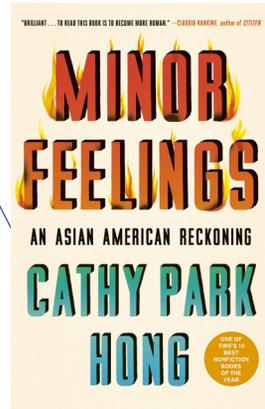
“나는 지난 5년 사이 이모와 엄마를 모두 암으로 잃었다.
그러니 내가 H마트에 가는 것은 갑오징어나 세 단에 1달러 짜리 과를 사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두 분에 대한 추억을 찾으려고 가는 것이기도 하다. 두 분이 돌아가셨어도 내 정체성의 절반인 한국인이 죽어버린 건 아니라는 증거를 찾으려는 것이다.”

《H마트에서 울다》 중에서

캐시 박 홍 | Kathy Park Hong

《마이너 필링스 Minor Feelings》

■ 《마이너 필링스: 이 감정들은 사소하지 않다 Minor Feelings: An Asian American Reckoning》는 이민 2세대인 캐시 박 홍이 아시아인으로서는 겪은 미국 사회를 이야기한 자전적 에세이다. 서양의 백인 남성 중심 사회에서 아시아계 여성으로 살면서 느낀 ‘소수적 감정’을 정확히 묘사해 많은 독자의 공감과 함께 반향을 일으켰다. 작가는 1976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1965년 미국으로 이주한 그의 부모가 집에서 한국어만 썼기 때문에 학교에 가기 전까지 영어를 제대로 할 줄 몰랐다고 한다. 이민 1세대와 달리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지만 차별받는 유색인종으로 살아온 작가는 책에서 미국 내 아시아인의 지위를 ‘모범 소수자’ 인간 같



《Minor Feelings》, 《마이너 필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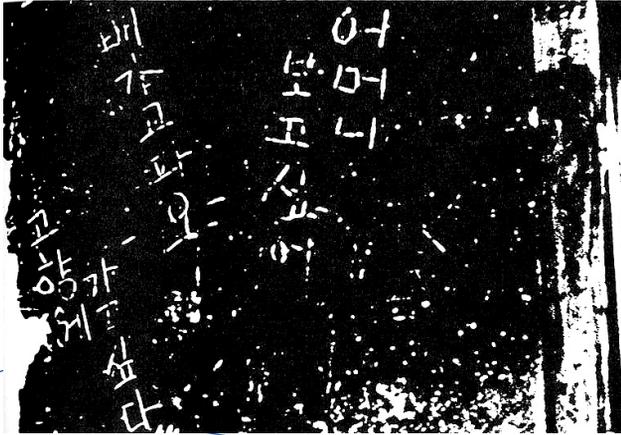
지 않은 존재’ ‘존재감조차 없는 존재’로 표현했다. 《마이너 필링스》는 2020년 2월 출간돼 각종 유력지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으며, 작가는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2021년 8월 국내 출간 기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작가는 “인종적 정체성 때문에 백인이고 싶어 하거나 자신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했다”며 책을 쓴 계기를 밝혔다.¹

“우리가 목청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의 수치심은
억압적인 아시아 문화와 우리가 떠난 나라에 의해
초래된 것이고, 미국은 우리에게 오로지 기회를
주었을 뿐이라는 신화를 영구화하게 된다.”

《마이너 필링스》 중에서

¹ 《한국일보》 “나는 왜 백인이 아니란 말인가” 한국계 작가의 물음, 2021.08.19.





《딕테Dictee》의 첫 페이지에 실린 한글 낙서

뉴욕의 이방인: 타국에서 세상을 떠난 예술가

같은 미국 뉴욕 이민자이지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31세의 나이에 요절한 차학경과 한국을 떠나 타국에서 창작 활동을 하며 100세 가까이 장수한 포킴은 작품의 분위기만큼이나 상반된 삶을 살았다.

차학경 Theresa Hak Kyung Cha | 1951~1982

■ 차학경은 사후 40년인 2022년 재조명받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예술가이다. 2022년 1월 10일 《뉴욕타임스》가 뒤늦은 부고를 심층 기사로 냈고,² 《파친코》의 이민진 작가는 “한국계 미국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야기한 차학경에게 영향받았다”고 했으며, 캐시 박 홍은 《마이너 필링스》중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글에서 차학경의 죽음을 다뤘다. 차학경은 부모와 본인이 겪은 이주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모국어 상실의 경험을 글, 비디오, 필름, 공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실험적으로 표현한 작가다. 차학경은 1951년 3월 4일 6·25 전쟁 중 피난을 간 부산에서 태어나 1962년 가족과 함께 미국 하와이로 이주했다가 1964년 샌프란시스코에 정착



차학경 <통로/풍경 Passages Paysages>(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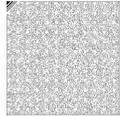
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카ampus에서 비교문학·예술 등의 학위를 취득, 1976년 파리에서 1년 동안 영화를 공부하고 돌아와 1980년 8월부터 뉴욕으로 이주해 활동했으며, 1982년 5월 미국인 사진작가와 결혼했다.³ 생전에 모국은 1979년과 1981년 두 번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어·영어·불어 3개 국어를 구사하던 그의 대표작 《딕테Dictee》는 언어와 장르를 넘나드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이산문학의 대표작이다. “엄마, 보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라고 쓰인 한글 낙서 이미지로 시작해,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광복 후 미국으로 이어진 어머니의 험난한 이주 여정을 통해 이민자의 삶과 디아스포라를 포함하는 한국사를 이야기했다. 작가는 《딕테》출판 직후인 1982년 11월 5일 건물 경비원에 의해 살해됐다. 무명에 가까웠던 예술가의 작품 세계는 사후 미국에서부터 점차 조명되기 시작했다. 1993년 뉴욕 휘트니미술관 개인전을 시작으로 2001년 9월 ‘차학경 아카이브’를 관리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대 버클리미술관 퍼시픽 필름 아카이브BAMPEA의 기획으로 회고전 <관객의 꿈 A Dream of the Audience>⁴이 열렸다. 미국 5개 도시 순회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서울(2003.9.5~10.16, 쌈지스페이스)을 찾으면서 한국에도 본격적으로 소개됐다. 《딕테》는 1995년과 2001년 미국에서 재발행됐고, 한글판은 2004년 4월에 나왔다. 《딕테》를 원작으로 한 연극 <말하는 여자>가 1998년 6월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초연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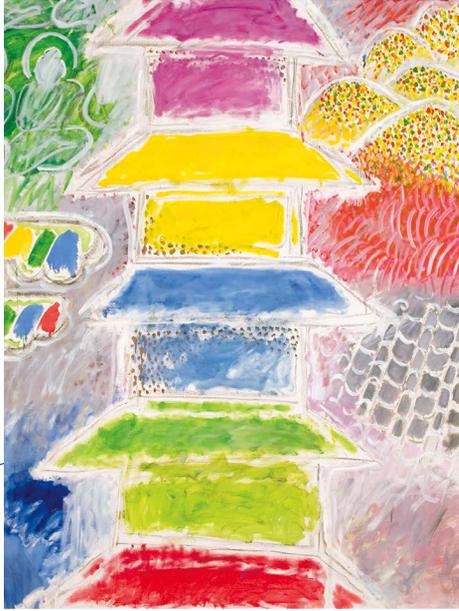
² <The New York Times> ‘Overlooked No More: Theresa Hak Kyung Cha, Artist and Author Who Explored Identity’, 2022.1.10.

³ 차학경의 이력은 자료마다 조금씩 달라 작가의 아카이브를 관리하고 있는 버클리미술관 큐레이터(Lawrence Rinder)의 기록을 기준으로 했다. oac.cdlib.org/findaid/ark:/13030/tf238n986k

⁴ <The Dream of the Audience: Theresa Hak Kyung Cha(1951-1982)>전 보도자료, bampfa.org/press/dream-audience-theresa-hak-kyung-cha-1951-1982.



1



김보현^{Po Kim} | 1917~2014

■ 김보현(포킴)은 일제강점기인 1917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2014년 2월 7일 미국 뉴욕에서 97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1937년 일본 도쿄로 건너가 유학한 후 1946년 귀국해 조선대 미술대학 교수로 임명됐으나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서 고초를 겪다가 1955년 일리노이주립대 교환교수 자격으로 한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했다.

1세대 한인 화가로 고국과 단절되면서 느낀 상실감과 외로움, 일본과 미국에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자유와 해방의 상징인 새와 물고기에 투영해 표현했다. 60년 가까운 타지 생활에도 한국인이라는 뿌리와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복·호랑이·단청·탑과 같은 한국적 모티프를 사용했으며, 서양의 추상표현주의에 동양의 서예 기법을 접목해 유토피아적 세계를 구현했다. 그는 고국을 떠난 지 38년 만인 1995년 10월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대규모 원로작가 초대전을 계기로 한국과 다시 연을 이어갔다. 당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나이가 드니어릴 적 놀던 고향 생각이 자꾸 난다. 그림을 그릴 때도 고향의 정

5 《한국경제》 [인터뷰] 김보현 재미화가, 38년 만에 고국서 '개인전', 1995.10.02.

2



1 포킴 <탑 Pagoda>(2000)

2 포킴 <날아가는 새와 물고기 Flying Birds and Fish>(2006)

취가 저절로 묻어난다”며 조국에 대한 향수를 드러냈다.⁵ 2007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을 비롯해 뉴욕에서 교류했던 김환기와의 인연으로 환기미술관 등에서 대규모 전시를 열었다. 생전에 340점의 작품을 조선대에 기증하기도 했다. 마침 그의 후기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전시 <지상의 낙원을 그리다—뉴욕의 한인화가 포킴>이 6월 12일까지 종로구 삼청로 학교재에서 열린다. 198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의 회화 23점을 만날 수 있으며, 온라인 전시장(online.hakgojae.com)에서도 관람할 수 있다.

글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사진 제공 버클리미술관 퍼시픽 필름 아카이브(BAMPFA), 학교재



“우리는 모두 디아스포라 존재입니다”

이혁상 디아스포라 영화제 프로그래머

제10회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인천아트플랫폼과 애관극장에서 열렸다.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영화제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자취를 돌아보고 디아스포라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관객과 소통했다. 2017년부터 영화제에 합류해 지금까지 디아스포라 담론을 다룬 다양한 영화를 세상에 소개하고 있는 이혁상 프로그래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국 사회의 디아스포라

■ 살아가면서 자신의 위치가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을 때, 누구와도 어울리기 힘들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흔히 “이방인이 된 것 같다”고 말한다. 이방인(異邦人)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언어·문화·환경·정치·경제 등 삶의 조건이 ‘다른’ 나라에서 ‘이동한’ 사람이라는 말이다. 이민자·이주민·난민·실향민 등이 해당하며 이때의 이동은 자의에 의한 것일 수도, 타의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분산과 이산 등의 의미로 확장해 쓰이는 현대적 의미의 ‘디아스포라’인 셈이다.

하지만 “이방인이 된 것 같다”는 일상 속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디아스포라의 문제는 단순히 국경에 국한하지 않는다. 오래도록 살아온 나라임에도 이방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도리어 다른 나라에서 익숙함을 느낄 수 있다.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우리는 모두 이방인’이라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평생을 ‘고향’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전 세계가 빠르게 국제화되는 만큼 한국 또한 많은 이주민이 선주민과 공존하죠. 여전히 국외로 이주하는 한국인도 많고 되돌아오는 이민자도 많아요. 이제는 한국에 귀화해 선주민이 된 이도 많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 이주는



이혁상 디아스포라 영화제 프로그래머

일어나고 있어요.”

이혁상 프로그래머는 한국 사회의 디아스포라를 만날 수 있는 대표작으로 개막작인 <빠마>와 <2차 송환>을 소개했다. 먼저 <빠마>는 방글라데시 출신 한국인 셰알마문 감독의 단편영화로 결혼이주민 니샤가 한국의 가부장적 ‘시월드’를 만나 겪는 문화충격,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다. 한편 한국독립다큐멘터리의 거장 김동원 감독의 <2차 송환>은 <송환> 이후 20년 만에 완성한 작품으로 고향인 북한으로 갈 수 없는 비전향 장기수의 삶을 통해 한국의 디아스포라를 표현하고 있다. 두 작품 모두 관객으로 하여금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디아스포라 현실을 성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경을 벗어나 정체성의 다양한 경계를 넘나드는

디아스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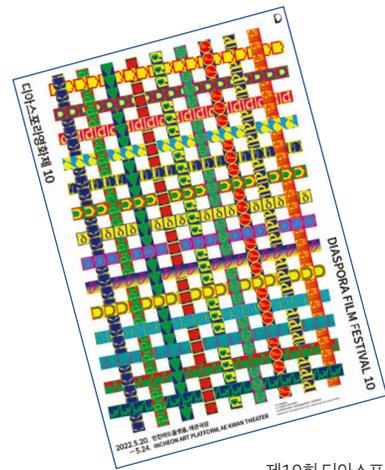
■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공식 출품작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2022년 공식 출품작은 총 383편으로 지난해보다 60여 편 증가했다. “다양성과 공존은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추구하는 가치예요. 차별과 편견으로 세상에서 지워진 이와 어떻게 공존해 나갈 것인지 영화를 통해 모색하려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산·이주·이민 등과 같은 기본적·물리적 개념의 디아스포라를 넘어 민족·인종·계급·성별 등 정체성의 다양한 경계를 넘나드는 소수자 이슈까지 아우르는 작품이 늘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예요.”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는 추천작 중 하나로 이혁상 프로그래머는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난민 ‘아민’의 삶을 담은 덴마크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나의 집은 어디인가?〉를 꼽았다. “아민은 난민이면서 성소수자입니다. 현대의 디아스포라는 개인의 정체성에서 파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력·질병·인종·종교·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받고, 이를 피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떠나 물리적·정신적 방황을 하는 디아스포라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의 집은 어디인가?〉는 정체성과 교차하는 디아스포라의 현실을 담은 수작입니다.”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한 영화는 어둡고 가슴 아픈 내용일 것이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는 2018년부터 ‘시네마 피크닉’ 섹션을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안녕, 낯선 사람?’이라는 부제로 〈카사블랑카〉 〈사운드 오브 뮤직〉 〈침밀밀〉 등 즐겁고 가볍게 감상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작품 여섯 편을 준비했다. 또 자연스럽게 디아스포라를 접할 수 있도록 체험·전시·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꾸준히 디아스포라 담론을 공유했다.

삶으로 확장되는 디아스포라

■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하필 인천에서 열리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이 시작된 도시이자 이주의 이야기가 가득한 지역이고, 또 현재 한국을 찾는 이들이 가장 먼저



제10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포스터

만나는 도시예요. 특히 140여 년에 이르는 개항의 역사를 품고 이국적 분위기를 자랑하는 인천 중구의 건축물은 이 도시가 가진 문화적 다양성, 포용성을 짐작하게 하죠. 또한 영화제가 열린 인천아트플랫폼은 개항기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문화예술 창작공간이며, 애관극장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첫 근대식 극장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천공항에서 난민은 입국을 거부당했고 인천퀴어문화축제는 혐오 감정을 표현하는 반대 집단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나라마다 개방적인 도시 또는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영화제와 유사한 문화행사가 하나 이상은 열리고 있고,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인 만큼 뉴욕·로스앤젤레스·시애틀 등 지역별로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열려요. 문화 다양성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통해 점차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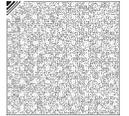
이혁상 프로그래머는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사회의 비주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돼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영화제를 통해 관객에게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우리 주변의 차별과 혐오를 어떻게 바라보고 인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은 ‘보통’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디아스포라의 상황은 공기처럼 우리 주변에 흩뿌려져 있죠. 영화제를 통해 모두가 자신을 디아스포라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 장보영 객원 기자 | 사진 제공 디아스포라 영화제 사무국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인 국악

교과서 음악/국악교육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근원적 질문





—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1차 시안’이 발표된 4월 이후 국악 교육과정과 관련한 사안이 사회적 공론의 대상이 됐다. 국악계는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누락됐던 국악 고유 개념 요소를 담을 것을 요구하며 대대적 캠페인을 펼쳤다.

※ 지난 5월 17일 교육부는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국악 관련 내용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음악은 만국공통어다”라는 관용어가 있다. 언뜻 옳은 듯 보이는 이 관용어는 “음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언설로서 서구 제국주의와 서구의 자문화중심주의에 기반한다. 서양음악은 어디서나 통용되는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우월성의 과시이자 ‘보편’이 되었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서양음악의 보편화는 제국주의의 그림자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지난 세기 기독교 선교사, 초국적 음반산업, 음악교육을 통해 보편적 ‘음악’의 지위를 독점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점령지의 음악들은 ‘(서양)음악과 나머지’로 명명됐다.

음악교육의 근대적 기원과 본질적 문제

음악 교과서 논란을 국악계의 야합 혹은 밥그릇 싸움으로 바라보면 음악교육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놓치게 된다. 21세기에 전 국악계가 나서서 항의 시위를 벌이게 하는 일은 가혹한 것이며 “국악 요소를 넣어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답변은 참담하다. 현장의 전수조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대책도 문제의 근원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음을 보여준다.

국악교육의 미래를 위한

사회 이자람

출연진
이준희·강효주
김용우
우리소리 바라지
김버나비
송가인
소리통 가객단
전통연희단 전치마당

연사
윤미용(전국악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문재숙(국가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임미선(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 회장)
정은경(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회장)
임호석(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위원장)

행사 안내사항
1. 본회의 국악관 대학생 및 국악인, 국악에 관심 있는 시민 500명 참석 권장 (입장료 없음)
대구·부산·광주 버스대절 확충, 탑승 신청 문의(010-2010-8429 김지현): 12월(목) 오후 3시44분까지
2. 본 행사는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국악교육의 위기는 우리 국악인의 위기입니다. 국악교육 정상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003-675641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1만원 이상부터 후원 가능)
3. 당일 행사 방역수칙에 따라 모든 참가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행사장 내 위생이 중요합니다.

전 국악인 문화제

2022.05.15(일)
스승의날
오후 3시
청계광장

2시 30분부터
예비 공연 '갈놀이'가
펼쳐집니다.

주최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전국국악인비상대책위원회

주관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
전국국악교과수협의회
전국국악전공자협의회
전국국악연주자연합회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전국국악학술단체연합회

국악교육을 지키기
위한 서명 하러가기

<http://www.petition.co.kr/50210310461>

교육대 교원의 수와 전공자 수에서 압도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때로 서양음악 전공 교사가 국악을 가르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모든 음악교육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서양음악 전공 교사로 국악교육을 위해 직접 국악을 배우는 열정을 가진 분도 많다. 현재 국악교육 환경은 교수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가 국립국악원 등의 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주권을 잃고 식민 통치를 경험한 치욕의 역사가 있다. 나라를 잃은 이유를 근대화와 문명화에서 찾았으며 근대는 서구화를 향한 문명화와 동의어였다. 음악(音樂, 은카루은 'Music'의 번역어)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조어(造

譜이다. 근대 용어 ‘음악’은 조선으로 들어와 일본화된 ‘양악’을 지칭했다. 악樂, 소리, 풍류 등 여러 이름으로 지칭되던 이 땅의 다양한 음악은 ‘조선악(훗날 국악)’으로 명명됐다.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공적 음악교육은 일본식 서양음악 ‘창가’를 교육했고, 조선악은 학교 공교육에서 배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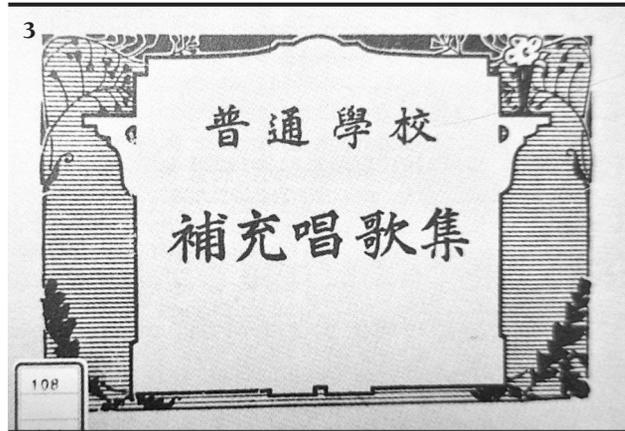
광복 이후 미군정기에도 음악교육의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미군정기 음악교육은 일제강점기 음악교육의 틀을 유지해 창가에 기반한 근대 동요에 근가풍 노래를 추가했다. 물론 어떤 노래도 ‘국악’은 아니었다. 음악 교과서에 담긴 내용만으로 보자면 음악에서 우리는 주권을 다 잃은 상태로 현대를 맞았다. 첫 국정 음악 교과서에도 국악은 없었다. 음악 교과서의 기득권인 서양음악이 국악에 자리를 ‘일부’ 내어주기까지 50년 이상이 걸렸다. 오랜 투쟁을 거쳐 국악은 현재 30%의 지면을 할당받을 수 있었다.

내면화된 서구중심주의를 넘어

성찰적 미래의 음악/국악교육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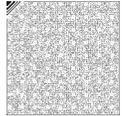
한국에는 콘서트홀, 오페라극장, 오케스트라, 오페라단도 많고 클래식 팬도 많다. 이미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양악도 이 땅의 음악이 됐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유럽 작곡가들이 작곡한 작품만을 인류의 보편적 음악으로 규정하고 표준으로 삼는 일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반문해야 한다. 서양음악을 음악의 보편적 지위에 놓을 때 가장 심각한 일은 서양음악과 ‘다른’ 많은 음악이 ‘비음악’이 된다는 데 있다.

음악교육은 음악의 3요소를 리듬·화성·선율이라 가르친



다. 이 서양음악 3요소를 기준으로 하면 국악은 ‘화성을 갖추지 않은 비음악’이 된다. 그런데 전 세계 음악 중에서 화성이 중요한 음악은 서양음악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국악은 화성 구조가 필요 없는 미학을 추구하는 음악이다. 음악에 있어 박자는 시간 개념이라는 점에서 보편적이지만 그것을 지칭하는 용어와 정의는 문화에 따라 다르다. 장단이 리듬과 다른 이유다.

그런데 여기서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진다. 서양음악을 보편의 위치에 그대로 둔 채 국악이 다른 ‘다문화’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다. 지난 교육과정 연구를 진행한 교수의 발언이다. 비서구 음악 연구를 통해 서구 음악의 우월성을 증명하고자 했던 20세기 초반의 비교음악학을 떠오르게 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 음악의 타자화는 제국주의와 닮아 있다. “모든 음악은 동등하다”는 전제하에 서양음악도 인류의 많은 음악 중 하나임을 인정할 때 음악교육은 보편성·특수성·다양성을 가르칠 수 있다.



- 1 '전 국악인 문화제' 현장
- 2 '전 국악인 문화제' 포스터
- 3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음악 교과서 보통학교 창가집
- 4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 성명문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 학생들의 교실에서 국악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 4월 발표한,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시안)에서 국악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대거 삭제되었습니다.

그동안 초·중·고등 학생들이 교실에서 장단, 한배 등 우리 국악의 고유한 내용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부터 국악을 국악 관련 용어로 지도할 수 있도록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명시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 음악과 교육과정에 국악 관련 내용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었기에 음악 교과서에도 국악 내용이 30~40% 이상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 음악과 교육과정'이 이번에 발표된 시안대로 확정된다면 국악 관련 내용이 음악 교과서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새 교육과정 개발의 문제점을 협의하고자 교육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나 교육부는 우리의 요구에 어떠한 확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강국의 힘은 오직 전통문화를 아는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국악계의 관심과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교실에서 국악을 지켜주세요.

오는 5월 15일(일) 오후 3시, 국악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악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장소와 일시를 추후 다시 공지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악교육 정상화를 위한 행동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후원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5월 15일에 개최되는 국악 문화제와 국악교육수호를 위해 쓰여집니다. 많은 국민인들의 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212-0082-81 한국국악학회
(1만원 이상부터 후원 가능)

이 이미지는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국악 축소 위기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국악계 교수·강사들에게 상황을 알리는 용도로 제작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의 공유를 금합니다.

그런데 제국의 시선이 여전히 음악계와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 때가 많다. 서양음악을 둘러싼 계급의 식과 허위의식은 현재의 사태와 깊이 연동돼 있다. 왜 국악에는 화성이 없느냐, 그러니 국악은 열등한 음악이 아니냐는 질문을 들은 적이 많다. 서구중심주의를 내면화한 굴절된 근대화의 결과다. 국악의 배제를 지속하게 한 허위적 계급의식이라는 괴물이다.

한국 문화의 글로벌 지위는 상승하고 있다. 한국 문화의 글로벌 수석이 'K'에 대한 무비판적 자문화중심주의는 경계해야 하지만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한 근대적 문명화에 대한 열패감의 망령이 자부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방증하는 기표라는 점에서 양가감정을 갖게 한다. 현재의 교수자와 미래 세대가 성장할 한국, 글로벌 환경은 다르다. 이들은 국악에 대한 편견도, 양악에 대한 허위의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국악교육의 성과로 이미 미래세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는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음악교육으로 미래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 내면화된 우리의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지난 20세기의 한국 문화를 성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현재 국악교육의 이슈는 음악교육에 관한 새로운 성찰과 사회적 합의를 요구한다. 음악의 보편적 지위를 서양음악에 내주는 일이 온당하지 반문하고, 국악은 국악 전공자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자각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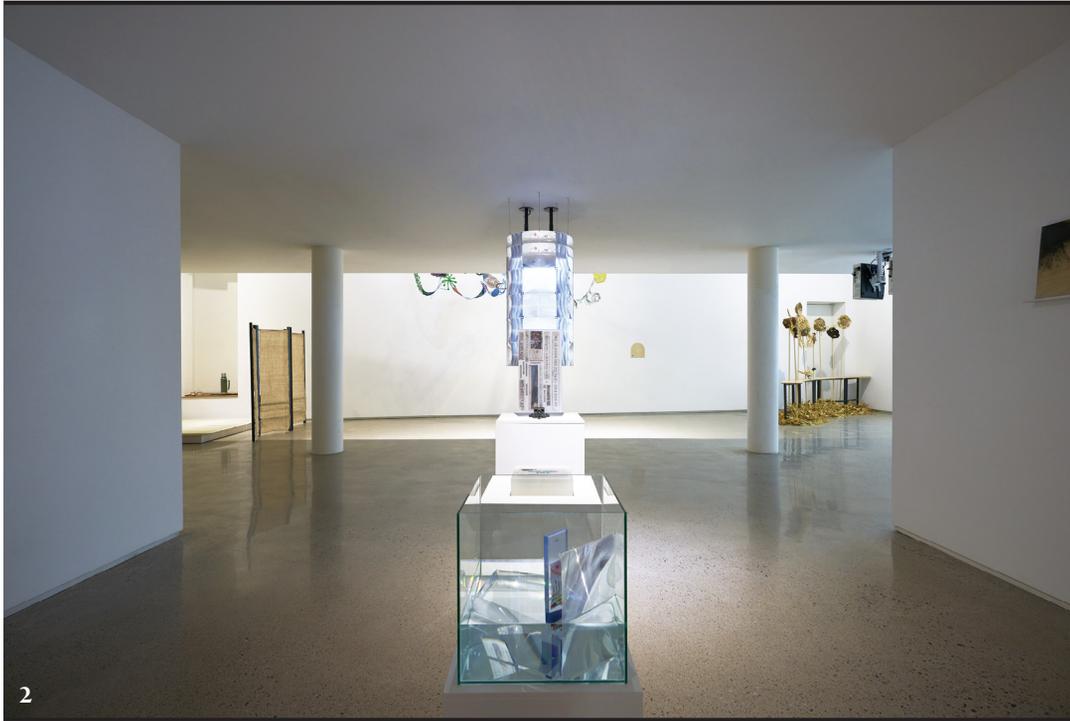
글 김희선,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음악인류학 박사
사진 제공 김희선,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



지구와 예술의 유연한 관계 맺기

지구와 예술_handshaking

— 5월 16일부터 29일까지 윈드밀에서 열린 <2021—2022 공동창작 워크숍: 지구와 예술_handshaking>(이하 <지구와 예술_handshaking>)은 ‘지구와 예술’이라는 열쇠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 태어나는 순간 지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 예술을 통해 지구와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는지 질문하고 방법을 모색하는 ‘대화의 장’이었다.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필자는 이 전시를 반드시 관람해야 한다고 직관적으로 깨달았다. 전시가 미래 시점에서 오늘날의 지구를 바라보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2

<2021-2022 공동창작 워크숍>은 서울문화재단 4개 창작공간(잠실창작스튜디오·금천예술공장·서울무용센터·신당창작아카데미)의 전·현 입주 예술가들이 참여한 공동 창작 프로젝트이다. '지구와 예술'을 키워드로 1차년도(2021)에는 공동 창작을 위한 연구 및 작품 개발, 2차년도(2022)에는 작품 제작 및 발표 활동을 했다.

참여 팀(참여 작가)

움뒀 김현진, 문서진, 송주원, 이우주, 장해림, 전보경

비둘기들 김은설, 김하경, 이민희, 정원, 정혜정

뷰티풀 플랜 김영미, 손상우, 이선근

1 정원 <섬의 지도> 섬으로 가는 길과 섬에서 채집한 먼지, 가로수 낙엽, 이끼, 나무껍질, 잡초, 빗물, 모래, 어망, 낚시줄, 고무조각, 장갑, 비닐, 뉴락, 병뚜껑, 플라스틱 조각, 새우 껍데기, 게 껍데기, 조개, 해삼 조각, 바닷물, 해초, 녹조, 홍조, 우뚝가사리, 가변 크기 | 2022

2 김영미, 손상우, 이선근 <B.P field> 복합 매체, 가변 크기 | 2022

3 전보경 <murmur> 16mm 필름, 2채널 영상, 라이트박스, 가변 크기 | 3분 | 2022 | 도움: 이우주

4 문서진, 송주원 <말문이 막힐 때, 옥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 |

2채널 영상과 옥수수 가면 오브제, 가변 설치 | 2022

예술과 지구가 관계 맺는 방법

'비둘기들(김은설, 김하경, 이민희, 정원, 정혜정)'의 작업은 전시의 시작을 알리는 날갯짓이다. 이들은 '섬'이라는 키워드를 손에 쥐고 각자의 방법론으로 작업한다. 전시장 입구에서 만난 정혜정의 <X의 유령들>(2022)은 우주 속 지구, 지구 속 '나'의 관계를 복합 연동체로 이해한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지속되는 우주적·자연적 활동을 목소리, 사운드, 2D 화면 속 3D로 구현하며 혼합·교차·공존의 짧은 픽션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그 옆에 배열된 원통과 사각뿔 모양의 조각인 김은설의 <숨>(2022)은 귀를 쫑긋 세우게 만든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은 소리의 근원을 향해 쫓고려 앉아 조각 가까이 귀를 대는 순간, 우리는 멀리에서 왔을 때는 단단한 것이라 믿었던 조각이 사실 종이로 만들어진 유약한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김은설의 이 작업은 ‘섬’을 미술의 문법인 조각으로 시각화한다. 그리고 소리라는 비물질적 요소를 매개로 관객에게 지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김하경은 ‘섬’이라는 지형지물에 필연적으로 전제되는 해변의 흙을 작업과 연계한다. 오랜 시간 침식과 풍화를 거쳐 땅으로부터 나온 부스러기가 흙이라면, 흙이 풀고 있는 기할 수 없는 시간을 쓰디듬으며 작가는 토기를 만든다. 그리고 이를 매개로 과거의 시간을 떠올린다.

개별 작가의 다양한 화법은 보는 이로 하여금 서로 다른 감각을 건드리며 전시를 한결 다층적으로 관람할 수 있게 했다. 이를테면 물과 모래의 마찰, 마주침을 인간 존재에 덧대어 바라보는 이민희의 사진 작업 〈詩, 그리고 멜로디〉(2022)가 다소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섬’에서 주워 온 재료(우뭇가사리, 녹조, 조개, 이끼 그리고 각종 바다 쓰레기까지)를 전시장에 끌어들이어 관객이 현장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게 하는 정원의 〈섬의 지도〉(2022)는 실재적 감각을 적나라하게 건드리는 작업이었다.

인간과 지구의 관계에 대한 성찰

‘뷰티풀 플랜(김영미, 손상우, 이선근)’의 작업 〈B.P field〉(2022) 역시 다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창작 활동에서 필연적으로 배출되는 전시 폐기물이 지구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고민하면서 출발한 이들의 작업은 그 끝에 예지된 디스토피아적 결말을 가시화한다. 버려진 페트병 더미 너머로 흐릿하게 흘러가는 영상, 무력 전쟁이 발발한 2022년의 뉴스 조각, 썩지 않는 공산품과 라벨이 구성하는 종말의 풍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책임져야 할 과거와 살아내고 있는 오늘의 미시적 모습과 닮았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인간은 계속해서 지구에 빛지고 있음을 다시금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김현진, 문서진, 송주원, 이우주, 장해림, 전보경으로 구성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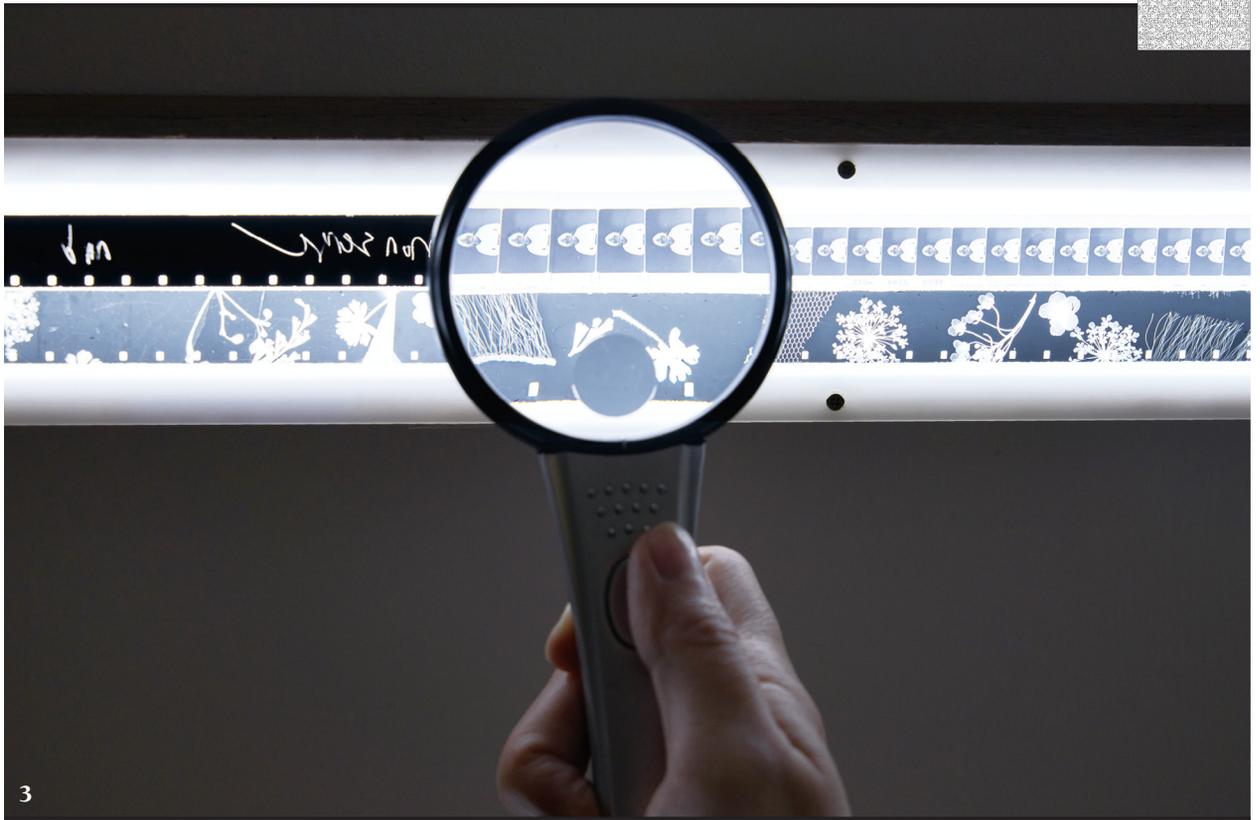
‘움닷’은 인간 존재를 ‘지구 방문자’로 전제하며 비인간적 관점에서 감각하기를 시도한다. ‘(인간이 아닌) 실체 없는 존재가 되어 지구를 바라본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자문하는 순간 문서진, 송주원 작가의 〈말문이 막힐 때, 옥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2022)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알려준 작업이었다.

옥수수 껍질로 만든 탈을 쓴 퍼포머의 신체 움직임과 소리를 전면에 내세운 이 작업은 약 3800만 년간 인류와 땅으로 묶여 있는 옥수수를 소재로 과거, 현재, 미래를 엮는다. 퍼포머는 이리저리 몸을 가볍게 흔들며 리듬을 타거나 나른하게 소리 내 하품을 하며 눕는 한편 갑자기 미친 듯 질주하며 절규한다. ‘본능에 가까운 소리와 행위를 떠올리게 하는 이 미지의 멜로디는 고대의 언어일까? 미래의 언어일까?’ 고민하며 말라빠진 허수아비를 살피던 필자는 사라져 버린 인류의 흔적을 보는 기분을 느꼈다. 이 낯선 감각은 아마도 미래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감각과 닮아 있을 것이다.

이 기분은 김현진의 〈있〉(2022)을 보면서도 이어졌다. 이 작품은 풀과 나무보다 먼저 지구에 등장해 5억 년 동안 자연과 생명을 견인해 온 이끼의 근원과 모양을 탐구하며 대화를 나눈 일종의 기록 일지였다.

한편, 하늘 높이 공중에 매달린 장해림의 작업 〈너와나는〉(2022)은 흡사 유전자 지도와 같은 구조로, 모든 (비)생명체가 결국에는 하나의 덩어리임을 은유하는 듯 느껴졌다. 열화상 카메라로 비추는 색으로 구성된 세상의 모습을 회화적으로 풀어낸 이우주의 〈온도색〉(2022)은 영원불멸의 심상을 담은 문인화 ‘괴석도’를 재해석한다. 그가 그리던 괴석도는 개별자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각자의 과동을 존중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를 시각적으로 드러냈다.

전시장을 가로지르는 필름과 무빙 이미지로 구성된 전보경의 작업 〈murmur〉(2022)를 살펴보자. 빠르게 돌아가는 무빙 이미지는 관람자가 객체가 되어 속도를 쫓아 대상을 강제



로 응시하게 했다. 필름은 관람자가 주체가 되어 각자의 속도와 걸음으로 이미지를 관찰하고 상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대척점에서 있다. 그의 작업은 인간과 기술의 맞물림과 어긋남 사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놓치는 것, 진짜와 흉내 낸 것, 몸의 속도와 기계의 속도 사이의 균형을 가능하게 했다.

전시 <지구와 예술_handshaking>의 작업은 다종다양한 방법으로 예술가가 지구에 말을 건네는 장으로서 의미가 있었다. 보는 이로 하여금 거리를 두고 작업을 바라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눈과 귀,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고 감각하게 하는 힘이 느껴졌다. 나는 이것이 전시, 그리고 기획자가 관람자에게 제안하는 지구와 관계 맺는 또 다른 방법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지구, 예술, 전시의 삼각관계를 떠올리며 전시장을 빠져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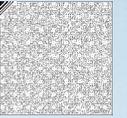
글 신지현 큐레이터 | 사진 이의록, 최요한



여기 있기도, 어디에도 없기도,
모든 것이기도, 아무것도 아니기도

↓
드래그 아티스트 모지민





— 여기, 사람이 있다. 남자이기도 여자이기도, 어른이기도 아이이기도, 식물이기도 동물이기도, 낮이기도 밤이기도, 여름이기도 겨울이기도, 여기 있기도 어디에도 없기도, 모든 것이기도 아무것도 아니기도 한. 발레를 전공한 발레리나(노), 이태원 클럽의 드래그 아티스트^{drag artist} (다양한 젠더의 특성을 공연의 형식으로 풀어내는 예술행위), 뉴욕 라 마마 극장의 퍼포머, 화려한 뮤지컬 배우, 이젤 앞의 누드모델, 책을 쓴 작가, 전시장의 예술가, 다큐멘터리 영화배우,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는 아티스트 모지민. 우리는 그를 ‘모어’라 부른다.

Q 안녕하세요. [문화+서울] 독자들에게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에 사는 모어, 모지민입니다. 털 모퉁이에 물고기 어썸, ‘털 난 물고기’. 영어로는 헤어리 피시^{hairy fish}라고 해요.(웃음) 털 난 물고기는 세상에 없는 낯설고 이질적인, 이 사회 어디에도 속하기 애매한 존재인 저를 명시하는 가장 아름다운 두 음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털 난 물고기 모어》라는 책을 4월에 냈고 <모어>라는 이름의 영화도 개봉합니다. 앞으로도 털 난 물고기라는 이름으로 계속 활동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제 삶은 ‘구더기’로 사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털 난 물고기마저 너무 미화시킨 게 아닐까. 저의 삶은, 그럼에도 찬란한 순간이나 화려한 무대가 너무 많지만 그

이면에는 먹고살기 위해 갖은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는 삶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일은 돈이 되지 않아요. 예술을 하기 위해 온갖 일을 해야 하고요. 저의 삶은 욕창의 구더기처럼 꿈틀거리는 아프고 고달픈 삶이지요. 그래서 저를 더 잘 명시하는 세 음절로 구더기를 떠올리게 됐어요. 지금은 구더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웃음)

Q 최근 《털 난 물고기 모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꽤 두툼하더라고요.

A 제 말투 들으면 아시겠지만 편집자가 수정할 수 없는 글이에요.(웃음) 그래서 제가 오롯이 476쪽의 엄청난 글을 고쳐야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글을 배우지도 않았고 어법도 정확히 몰라요. 무용에서 호흡하듯, 감각하듯, 글을 써요. 그



래서 어떤 문장은 서투르고 말이 안 되기도 해요. 인쇄 전 마지막 교정을 하는데 계속 고치다 결국 울면서 넘겼어요. 아쉽지만 자신 있게 뼈를 갈아 넣었습니다.(웃음) 제 일대기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제 인생이 굵이굵이 담겨 있어요. 욕, 비속어, 전라도 사투리, 제가 만든 세상에 없는 말이 온전히 담긴 특별한 책이라 출판사에도 감사하고 여한이 없어요. 더 할 나위 없이 행복해요. 사진 설명도, 책 양 날개의 글도 제가 썼어요. 제 손이 안 간 곳이 없어서 오롯이 저의 작업 같아요. 자랑입니다만 저의 책은 매우 술술 읽힌답니다.(웃음)

Q 어떻게 책을 내게 되셨어요?

A 저는 운이 참 좋아요. 제가 평소에 글을 쓰고 있어서 이미 글은 충분히 있었어요. 전에 친구들과 ‘앨리바바와 30인의 친구친구’라는 메일링 서비스를 6개월간 한 적이 있어요. 처

음으로 독자에게 글을 연재했죠. 그 글을 황인찬 시인이 읽고 칭찬해 줬어요. “담나는 문장이 많다”고. 이후 제 글을 주변에 추천해 줬고, 편집자에게까지 제 글이 알려지게 됐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책을 출간하게 됐지요.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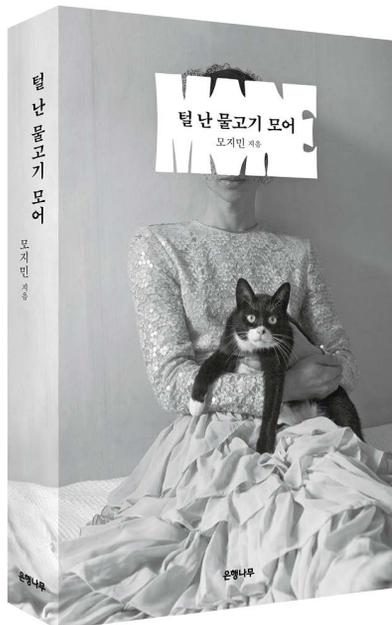
Q 모어의 글에는 친구가 많이 나옵니다. 아프고, 약하고, 강하고, 멋지고, 씩씩한 친구요. 이들은 모어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A 친구들은 저에게 돼지 껍질 같은 존재들이에요. 제 삶을 삼라만상 공해에서 감웃처럼 보호해 주기도, 길을 안내해 주기도 하는, 피부에 좋은 콜라겐 가득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존재이지요.

Q 모어는 참 복 많은 사람이군요. 슬픔도 많았지만 복도 많네요.(웃음) 올해 3월에 전시도 하셨지요. 꽤 오랜 시간에 걸쳐 촬영된 사진과 영상, 무대의상, 글이 설치돼 있었는데 인상적이었어요. 공연할 때와 전시할 때, 어떤 지점이 다르던가요?

A 옥정호 작가가 올해 3월 ‘신사옥’이라는 전시 공간을 오픈했는데 개관전으로 제 전시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의 사촌이자 사진 찍는 모지웅 작가가 4년 동안 성실하게 기록한 것을 전시했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노래도 부르며 자축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것도 복인 것 같아요.(웃음) 이렇게 이름을 내세워 개인전을 연 것은 처음이에요. 사진이 걸린 것을 전시 오픈 전에 보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20년 동안 해온 공연은 무형의 것으로 시간 속에 사라지고 제 기

모지민이 쓴 첫 번째 에세이 《털 난 물고기 모어》



제가 좋아하는 일은 돈이 되지 않아요.
예술을 하기 위해 온갖 일을 해야 하고요.

역, 사람들의 기억밖에 남아 있지 않아요. 사진은 여기 있고요. 벽면 여기저기 걸린 사진을 보는데 이 전시 역시 정해진 시간이 있고, 사라지고 없는 나 자신, 걸려 있는 나 자

살아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포기했으면 나오지 않았을 테고 살아서

존재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그 시간 안에서 버텨왔다는 데 감사해요.



2020년 7월 11일 국립현대미술관, 발레 무대에 서기 직전의 모습 ©김상덕

신, 존재하는 나 자신 역시 결국 소멸되고 사라질 것이라는 아주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사라지고 난 후에도 나의 책과 사진과 영화는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고, 나는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됐다, 너무 행복하지만 너무 슬프다, 전시에는 없는 내가 걸려 있다, 공연은 하염없이 사라지기 바쁘다. 결론은 그 무엇도 다 한시적이다. 사라진다. 그런 거죠.

Q 아. 그랬군요. 굉장히 복잡다단한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시공간 속에서 나, 내가 만든 것들, 또 남은 것들이 한눈에 보였을 테니까요. 영화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모어>가 곧 극장 개봉한다고 들었어요.

A 네. 2022년 6월 23일 개봉해요. 영화는 상대적으로 감독님의 시선과 관점을 통해 만들어지니까 오히려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게 된달까요. 이일하 감독님을 만나 2018년 9월 첫 촬영한 후 3년간 작업했어요. 작년 DMZ 영화제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밀리고 밀리다 영화관에 제대로 걸리기까지 무려 4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Q 어떤 영화인지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삶과 감정이 담겨 있어요. 제가 트랜스젠더잖아요, 수술은 하지 않았지만. 유년 시절부터 폭력을 경험했어요,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면 다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선배가 제 뺨을 갈기면서 “너 그 여성성을 버려”라고 했지요. 저는 저 멀리 날아가 나동그라졌어요. ‘죽어야 하는 구나, 여기서 벗어나려면’ 하고 생각했어요. 방황하다 이태원에 가서 쇼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 그곳은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20여 년 그곳을 경험하면서 저 나름의 지긋지긋한



애환과 슬픔이 있었어요. 그 모습이 고스란히 영화에 나와요. 2019년 미국 스톤월 항쟁 50주년 공연에 초대받아 뉴욕에서 공연하게 됐고, <헤드워크>의 원조인 캐머런 미첼도 만났고요. 고향의 가족을 찾아가 남편을 소개하고 남편과 2017년 5월 결혼하게 됩니다. 전에 제 결혼식을 촬영해 준 분이 이 영화의 조연출로 합류하면서 결혼식 영상이 영화에 담리게 됐어요. 참 신기하죠?

Q 와,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군요. 그 긴 시간과 과정을 온전히 담다니 모어님도 감독님도 참 대단해요. 전시도 하고, 책도 나오고, 영화도 개봉하고. 흠뻑뻑 구슬이 뚫어지는 시기 같기도 하네요.

A 인생이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책도, 영화도,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개봉한다고 문자 메시지를 받을 때 전시 중이었고, 책은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영화 나온다는 소식을 전화로 들었을 때 대구 지하철 안이었는데 많이 울었어요, 감정이 북받쳐서. 살아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포기했으면 나오지 않았을 테고 살아서 존재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그 시간 안에서 버텨왔다는 데 감사해요. 제가 복이 많아요.

Q 요새 한국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을 필두로 성차별, 젠더, 한국 거주 이주민에 대한 다양한 차별과 혐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왜 차별과 혐오가 생겨날까요?

A 한국 사회 자체가 보고 배우는 것이 한정적인 것 같아요. 교육도 그렇고요. 겨울에 길에 나가면 사람들 옷이 모두 까매요. 겨울이라고 꼭 까만 옷만 입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옷도, 집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말하고 표현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 조금 다른 것들을 만나면 거부감을 느끼고 폭력적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Q 그렇다면 다름과 마주했을 때 차별과 혐오의 감정으로 직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실행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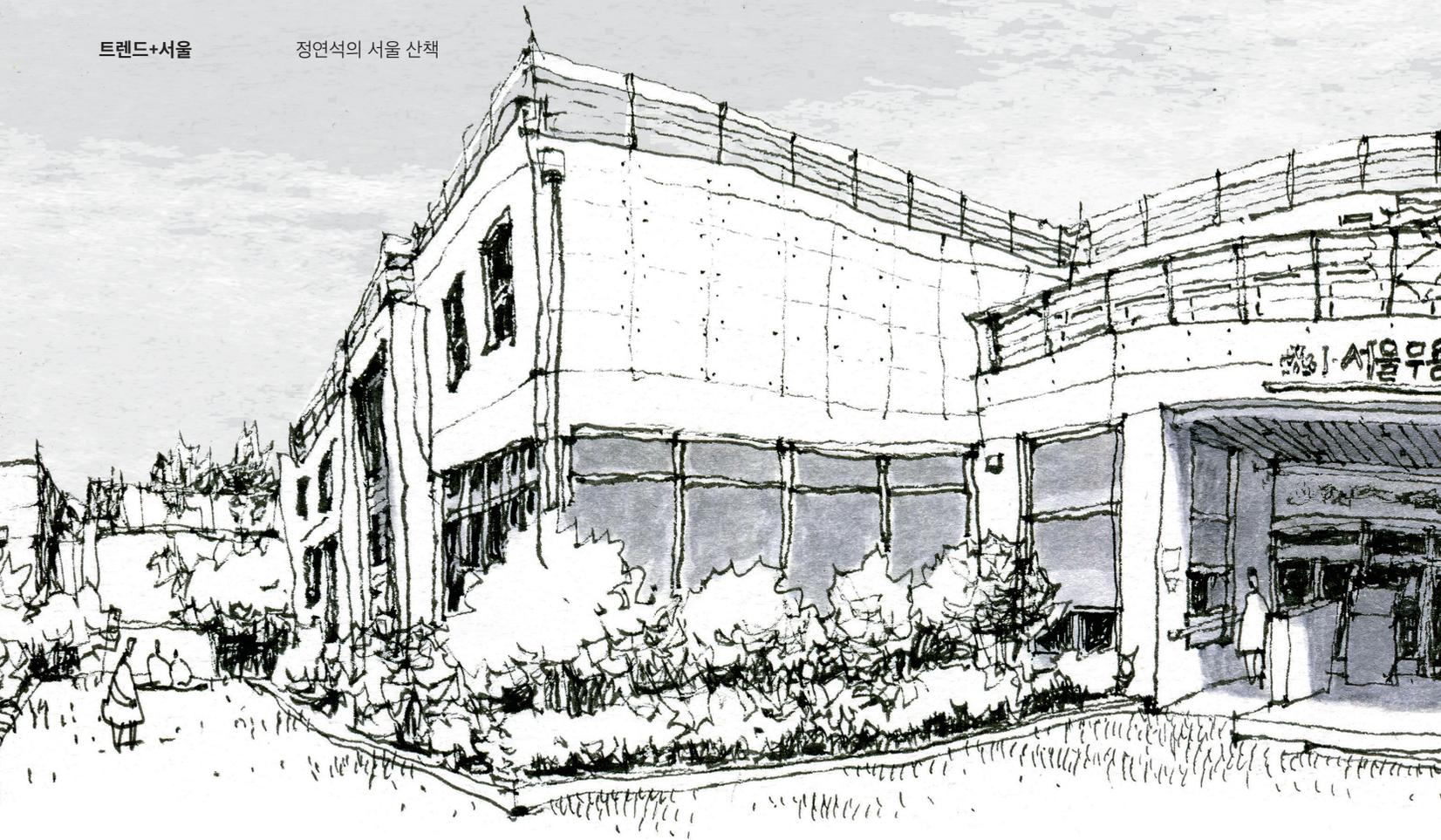
A 유튜브나 넷플릭스만 보지 말고 상황이 가능하다면 CD나 LP도 찾아 들어보고, 종이책도 만지며 읽어보고,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고, 공연이나 전시도 보고, 그것들을 보고 들은 후의 감정을 글로 표현해 보면 좋아요.

Q 그렇네요.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직접 경험하고 접해 보면서 다양한 아름다움과 감정,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올해 계획하고 있는 작업이 있나요?

A 은평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변방의 굿 닥터’라는 워크숍을 합니다. 여기서 ‘굿’은 샤머니즘의 ‘굿’이기도 하고 영어 ‘good’이기도 해요. 국민체조처럼 일반인들이 따라 할 수 있는 동작을 짜 한 달 정도 진행하려고 해요. 마지막 날 함께 춤을 추며 공연하고 영상으로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춘천에서 워크숍을 했어요. ‘생각의 탄생’이라는 워크숍이 있는데 과정 중에 드래그 수업이 있었어요. 4시간짜리 수업에서 참가자들에게 제 옷, 힐, 헤드피스를 입히고 화장도 해주고, 같이 끼 떨면서 워킹하고 연기도 해봤는데 반응이 좋았어요.(웃음)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니 바빠지네요. 영화 상영 후 GV도 50회 정도 하게 될 것 같고요. 힘들긴 하겠지만 관객이 한 분이라도 더 올 수 있다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고생스럽더라도 애써야만 하는 게 이번 생의 의무라면 애쓰는 게 맞고, 아름답고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살면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는 복 있는 사람이네요.

글 김연임, 전 <춤:in> 편집장, 어디어프렌드 디렉터 | 사진 공간느루 사진 제공 은행나무



푸른 산책길 속 극락정토, 홍은동

서울무용센터

— 5월 5일 어린이날 오전, 홍은동에 있는 서울무용센터를 찾았다. 서울무용센터는 백련산 아래 명지초등학교와 명지고등학교 인근의 주택가 끝에 자리하고 있다. 원래 서부도로교통사업소로 사용하던 공간을 2011년 홍은예술창작센터로 개관했고, 2016년부터 무용 장르 특화 공간인 서울무용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작은 집들이 모여 있는 주택가에 위치한 서울무용센터는 예술이 삶으로부터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생활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간을 통해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



백련산 아래 자리한 국내 유일의 무용 전문 레지던시

이날의 방문은 오전 11시부터 시작하는 '서울 스테이지11'의 무용 공연을 보기 위해서였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올해 4월부터 진행하는 '서울 스테이지11'은 매달 첫 번째 목요일 오전 11시, 총 11개 창작공간에서 동시에 펼쳐지는 예술 공감 콘서트다. 이날은 서울무용센터 2층의 무용연습실에서 <[잼:잼]무용&음악의 즉흥적인 만남>이라는 현대무용 공연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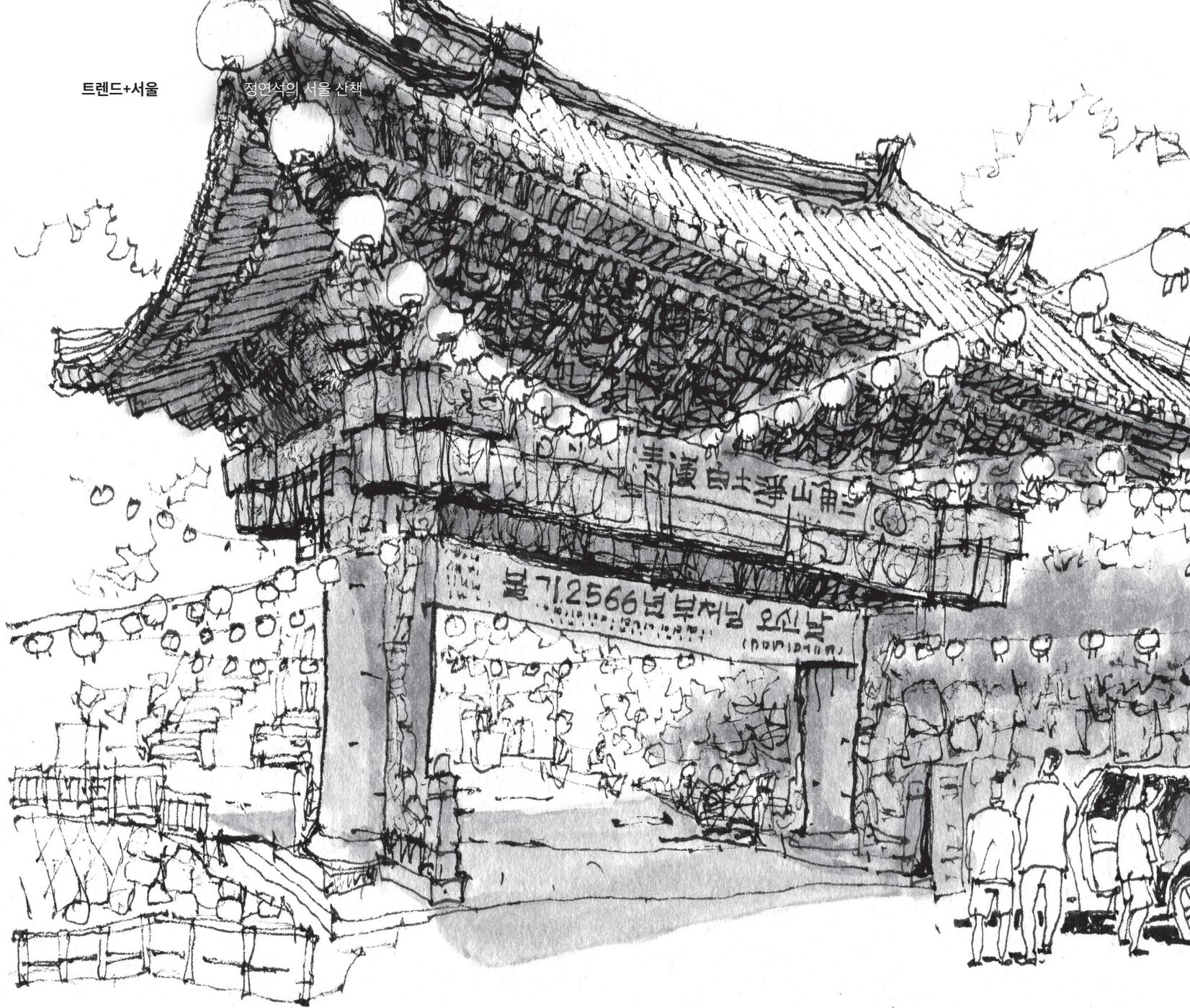
가로, 세로 15m의 넓지 않은 공간에 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현대무용에 무지한 나로서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공연이었지만 40여 분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흥미로웠고 집중도 잘됐다. 관객과 공연자가 함께 만드는 무대였고, 현장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놀 준비가 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무용센터는 국내 유일의 무용 전문 레지던시로, 무용 예술 창작 활동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지원하고 가능성을 실험하

는 공간이다. 총 네 개의 무용연습실과 두 개의 스튜디오가 있고, 선정된 무용예술가가 머물며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섯 개의 호스텔 '예술가의 방'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무용센터를 나와 명지고등학교와 명지초등학교 사이의 오르막길을 오른다.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된 태고종 사찰 백련사에 가기 위해서다. 아직 5월 초였지만 마치 초여름처럼 더운 날씨라 혹시나 해서 입고 온 두꺼운 옷이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곧 나뭇잎이 울창한 터널을 이루는 숲속 산책로가 나타났다. 높지 않은 계단 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가다 보면 백련사길과 만난다. 홍은동 주민들이 산책하는 백련산근린공원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종로구나 중구에 뽁뽁하게 박혀 있는 손바닥만 한 동네와 비교하면 이곳 홍은동은 한참 넓어서 걸어 다니기도 쉽지 않다. 같은 홍은동이라도 동네 분위기가 제각각이라 마치 다른 동네에 온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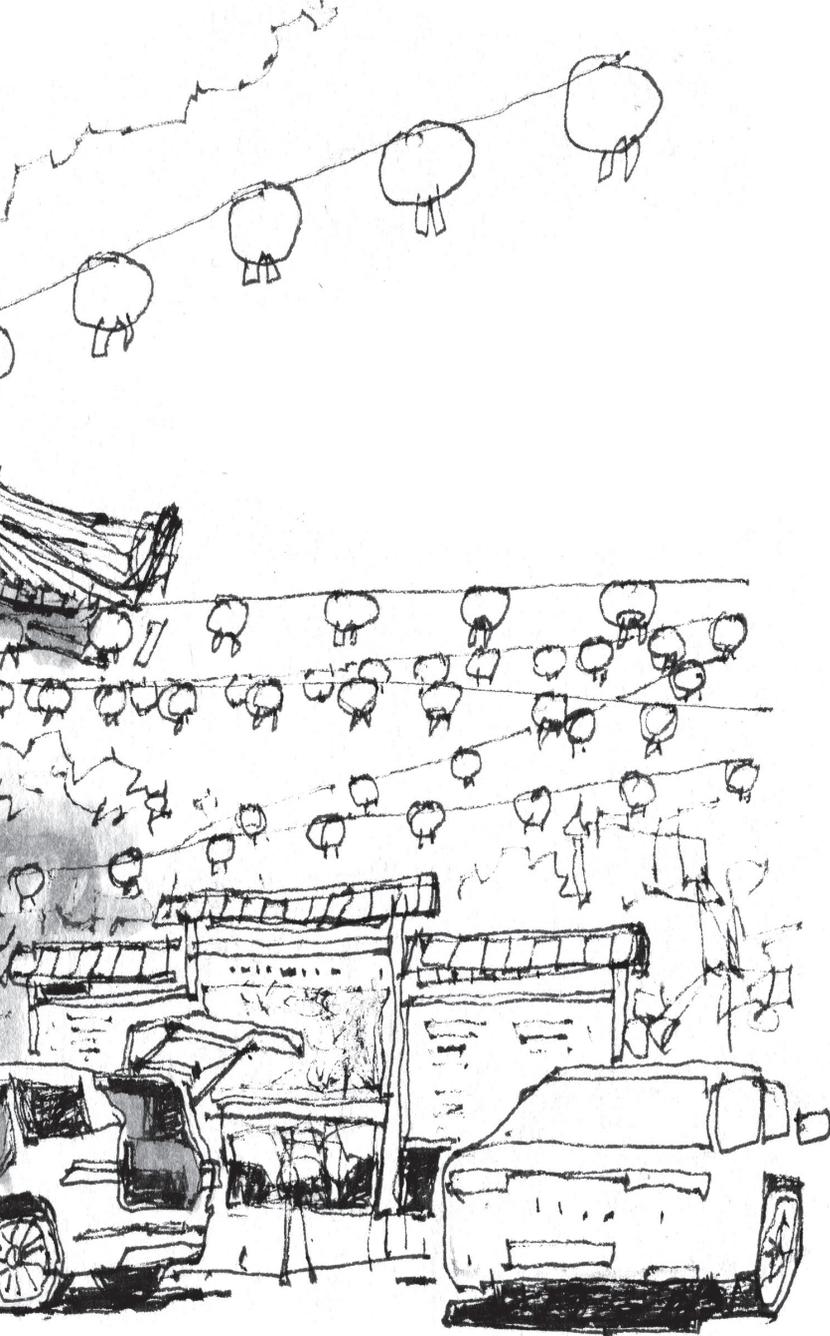
서울무용센터가 위치한 백련산 아래 홍은동은 북쪽과는 또 다른 분위기인데 중간에 자리한 백련산 때문인지 백련산 위쪽과는 도무지 같은 동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래봤자 해발고도 200m가 조금 넘는 동네 뒷산임에도 말이다. 그 동네 뒷산에 백련사가 있고 그 앞으로 가끔 10번 마을버스가 다니는 한적한 길이 있다.

이곳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면 도무지 빈 곳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서울의 전형적 사람 사는 동네가 펼쳐진다. 오늘처럼 제법 여름

홍내를 내는 5월 초의 더운 날씨에는 도로 주변의 나무 그늘을 따라 쉬엄쉬엄 걸어야 한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조용한 길이다.

백련사와 홍은동, 모세혈관처럼 연결된 절과 동네

그렇게 걷다 보면 백련사의 화려한 일주문이 보인다. 일주문 위 현판에 '삼각산정토백련사三角山淨土白蓮寺'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옛날 사람들은 북한산을 삼각산三角山이라고 불렀다. 백련사는 통일신라 시대에 진표율사가 창건한 절이다. 처음 이름은 정토



사였다. 부처님이 계시는 청정한 땅이라는 의미에서 붙은 이름이다.

그러다 세조의 장녀인 의숙공주가 부마인 하성부원군 정현조의 원찰로 정하면서 절 이름을 백련사로 바꿨다.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백련사는 희고 붉은 연등으로 장식돼 있었다. 백련사는 고요한 산속에 독야청청 자리하는 다른 산사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절이다. 그곳은 백련산 아래 경사지에 자리 잡은 홍은동의 좁은 골목과 모세혈관처럼 연결돼 있어 어디까지

가 절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마을의 영역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마을이 절을 품고 있고 절은 마을의 일부처럼 보였다. 불교 교리의 엄중한 원리가 마을 속 삶의 골목에 너그럽게 풀어져 있었다. 극락정토가 멀리 있지 않으며 사람 사는 동네가 곧 극락정토라고 말하는 듯했다. 종교적 이념과는 전혀 상관없는 골목과 계단이 이리저리 구불거리며 흐르고 있었다. 백련사에서 일주문은 절의 상징적 정문으로 존재할 뿐 절 곳곳이 입구가 되어 마을과 만난다.

백련사를 나와 다시 백련사길을 걸어 돌아 나온다. 들어갈 때 지나쳤던 백련사 부도밭을 자세히 바라본다. 다른 곳에 흩어져 있던 부도와 공덕비를 한자리에 모은 것이다. 천년 백련사의 역사가 이곳에 모여 있었다. 부도는 승려의 사리나 유골을 안치한 사리탑을 가리킨다. 부도밭을 지나서 왔던 길을 다시 거슬러 팔각정이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백련산으로 올라간다.

여기서 정상까지는 등산하는 기분이 아닌 산책하는 기분으로 천천히 올라야 한다. 등산로는 마을 주민의 산책로이기도 하다. 5월의 푸른 잎이 싱그러운 초록색 그림자를 적당하게 드리우는 기분 좋은 산길을 올라가면 곧 백련산 정상이다.

백련산 정상의 은평정에 서면 멀리 상암동과 은평구 일대가 잘 보인다. 백련산 정상을 경계로 북쪽이 은평구 응암동, 남쪽이 서대문구 홍은동이다. 이곳 정상에 매바위가 있다. 응암동의 지명이 이 매바위에서 나왔다. 백련산은 조선 시대 양반들이 매사냥을 즐겨 응봉이라고도 불렀다.

백련산 산책로는 요즘같이 습슬 더워지기 시작하는 날씨에 오르기에 딱 좋다. 굳이 등산화에 등산복도 필요 없다. 서울 도심과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에 오래된 사찰과 녹음 짙은 산책로를 품은 조금 만만한 뒷동산이 있다. 이번 주말에는 홍은동 백련산에 가보자.

글 그림 정연석 《서울을 걷다》 저자

세기말적 징후와 새로운 시작

연극 <기후비상사태: 리허설>과 <벚꽃동산>

바야흐로 건강한 초록이 세상을 점령했다. 마스크를 벗어던진 후에도 상 처는 굳은살 같은 흉터로 남겠지만 겨울을 버텨낸 나무가 잎을 틔우듯 마음에 새살이 돋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나무의 살결마다 아로새겨진 나이테처럼, 우리가 겪어낸 이 순간도 기억되고 노래될 것이다. 사람들은 조심스레 희망을 이야기하고 6월 공연계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삶이 그러하듯 연극은 계속되어야 한다.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우리는 지구 멸망의 시계를 늦출 수 있을까?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 5.11~6.5 |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동시대적 화두를 탐구하며 기후 위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창작극 <기후비상사태: 리허설>은 솔직한 자기 고백으로 시작한다. 기후 재앙이 인류의 턱밑까지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기후비상사태'는 쉽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지구의 수명을 24시간으로 가정했을 때 인류 멸망까지 60초가 채 남지 않은 이 순간에도, '지구의 위기'가 '나의 위기'로 감각되지 않는 현실을 꼬집으며 인류가 직면한 이 거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을 토로한다.

11개의 캐릭터(자아)로 분열된 화자 '나'는 "내 앞에 놓인 위기들이 더 크니까. 그게 진짜니까. 지금 당장 내 위기, 내가 죽겠는데 무슨 기후 위기가?"라는 날 선 목소리로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MZ세대의 심리를 대변한다. '환경보호'라는 거대 담론을 '나의 문제'라는 개인적 관점으로 접근하며 이야기를 풀어가던 연극은 "브레이크 없이 달려온 인류의 욕망을 스스로 멈출 수 있을까?"라는 본질적 질문으로 나아간다. 혼란스러운 성장 과정을 통해 우리가 기후 위기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라는 뼈아픈 현실 인식에 이르고 '기후비상사태'가 신자유주의 경제와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지적한다.

성장 신화와 속도전에 매몰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우리 주변의 불평등, 착취, 폭력으로 자란다는 연극의 주제는 통계나 숫자, 구호나 이념이 아닌 구체적인 '나'의 이야기를 통한 감각과 감정 전달이 예술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한다.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의 완벽한 어둠(암전)처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해 우리 삶에도 암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극 중 바람이 긴 여운을 남긴다.



<벚꽃동산>

가까이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
 <벚꽃동산> | 5.13~6.11 | 안뜰체휩극장

귀족 출신의 미망인 라넵스까야가 5년 만에 자신의 영지로 돌아오며 극이 시작된다. 인간사 희로애락을 아는지 모르는지 봄을 맞은 벚꽃동산에는 순백의 벚꽃 무더기가 흐드러지게 피어난다. 체호프의 <벚꽃동산>은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사건, 다양한 인간 군상이 빚어내는 해프닝을 통해 삶이라는 희비극의 아이러니를 객관적이고 관조적으로 포착해 냄으로써 21세기에도 여전히 사랑받는 사실주의 연극의 걸작이다.

성병숙 배우의 '라넵스까야 부인' 연기가 보고 싶어 주말 공연 시간에 맞춰 안뜰체휩극장을 찾았다. 고전의 향기를 곱씹어 보려 한자리에 모인 친구 세대로 관객의 열기가 뜨거웠다. 작은 무대 위에서 회한, 분노, 현실 부정, 연민, 새로운 희망, 사랑 등 다양한 인물 군상의 욕망이 들끓

었다. 체호프가 창조한 세상 속에는 단맛, 쓴맛, 신맛, 짠맛이 공존하고 극 중 인물은 잘 구워진 페이스트리 빵처럼 겉껍으로 싸인 감정의 속살을 숨기고 있다.

새로운 시대와 변화를 상징하며 구시대의 대칭점에서 극의 균형을 맞추는 신흥 계급 로빠힌은 변화를 외면해 무너져 가는 에덴동산(벚꽃동산)을 지키려는 라넵스까야 부인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연민한다. 지난 시대와 작별하며 텅 비어버린 공간을 채우는 것은 소멸하는 시대에 대한 늙은 하인 피르스의 허무와 회한뿐이다.

침몰하는 배 위에 남은 이는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며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며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벚꽃나무는 베어졌어도 벚꽃동산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피고 질 것이다. 상처가 깊은 흉터를 남기듯, 잊히는 것들의 향기는 존재의 질은 자국을 남긴다. 21세기에도 체호프의 희극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다.

글 전영석,《PAPER》기자 | 사진 제공 국립극단, 애플씨어터

덕수궁부터 강남대로까지, 도심 속 푸른빛 예술 정원

전시 <장-미셸 오토니엘: 정원과 정원>과 <공공>

1 <푸른 강 Blue River> 청색 인도 유리 벽돌

©Jean-Michel Othoniel / Adagp, Paris, 2022

2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프로젝트 <공공×김보희> 상영 장면



신록의 계절이다. 늦봄이나 초여름에 새로 나온 잎의 푸른빛을 의미하는 신록新綠이 일상 곳곳에서 반짝이는 요즘이다. 매일 오가는 역 근처의 가로수도, 골목길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나무 한 그루도 싱그러운 초록 잎을 돋우며 다시 돌아온 계절을 맞이하는 때다. 코로나19가 극심하던 지난해, 산림청은 숲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4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 상당수가 근심·두려움에 대한 정서가 뚜렷하게 개선됐고, 긴장·분노·우울·피로감 등이 감소하는 동시에 활력은 증가했다고 한다. 일명 ‘조온습(조명·온도·습도)’이 완벽한 이 계절, 탁 트인 야외에서 자연을 담은 예술로 정서적 치유를 할 수 있는 전시 둘을 소개한다.

정원이 주는 환희와 매혹

<장-미셸 오토니엘: 정원과 정원> | 6.16~8.7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덕수궁 정원

프랑스의 대표적 현대미술 작가 장-미셸 오토니엘(이하 오토니엘)의 작품을 6월 16일부터 두 달여간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과 덕수궁 정원 등 도심의 야외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오토니엘은 2019년 프랑



스 루브르박물관이 유리 피라미드 건축 30주년을 기념해 초청했을 만큼 유리를 활용한 조각 작품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받는 작가다. 그의 작품 ‘루브르의 장미’는 루브르박물관이 이례적으로 현대미술 작품을 영구 소장해 화제가 됐을 정도로 오토니엘은 가장 동시대적 예술가라 불리기도 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1월 파리의 프티 팔레에서 진행한 <The Narcissus Theorem>의 첫 번째 해외 순회전이다. 서울에서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의 실내 전시실뿐만 아니라 미술관 정원을 비롯해 인접한 덕수궁 정원에서도 진행된다. 정원을 향한 작가의 열망을 반영한 결과다. 전시명에서 느껴지듯 오토니엘은 정원을 작품의 중요한 영감으로 삼는다. 어린 시절부터 꽃에 매료된 작가에게 정원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실제 작업 초기부터 정원이 가진 다양한 면모를 자신의 작업과 연관 지어 왔으며 1997년부터는 정원을 포함한 야외 장소에서 꾸준히 작품 설치를 시도했다.

이번 서울시립미술관 전시에서 오토니엘은 정원이 주는 환희와 매혹, 경이와 같은 정서적 경험을 작품에 담아낸 ‘황금 연꽃’ 조각, 한국적 모티프



를 사용한 신작 '자두꽃' 회화 연작을 비롯해 26m에 이르는 거대한 유리 벽돌 조각 '푸른 강', 천장에 설치된 다양한 형태의 '매듭' 조각 등 웅장한 작품을 공개한다. 전시를 통해 현실의 고통과 상처를 회복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내면적 통찰의 시간을 주고 싶은 작가의 바람을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강남대로 야경 속에서 빛나는 태초의 자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프로젝트 <공공> | 4.29~6.30 |

자-라이트G-LIGHT

매일 밤, 강남대로 한복판은 웅장한 자연을 담은 회화 작품이 미디어아트가 되어 푸른빛을 발한다. 새롭게 설치된 강남대로 미디어플랫폼 자-라이트G-LIGHT에서 국립현대미술관과 4명의 작가가 협업해 만든 미디어아트 4편을 연말까지 차례로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미술관 울타리를 벗어나 야외에서 진행되는 <공공>은 미술을 매개로 공공장소에서 더 많은 대중과 만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강남대로를 예술로 물들이는 첫 번째 작가는 푸른 자연을 캔버스에 담아

내는 김보희 작가다. 이전 전시에서는 작가의 작품을 보기 위해 찾아온 관람객으로 미술관 앞에 긴 줄이 늘어섰을 만큼 화제가 된 한국화가다. 동양의 전통적 시각을 바탕으로 전통 분체를 사용하며 동서양의 매체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작업 방식으로 유명하다.

무성한 나뭇잎과 그 위에 올라앉은 화려한 색채의 새 등 화폭을 채우는 작가의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원형의 자연을 상상하게 된다. 이번 야외 전시에서는 동식물이 공존하는 하나의 세계를 구현해 자연이 지닌 시간의 순환성과 불변하지 않는 인간 생애 주기를 담아낸 작품 'Towards'를 비롯한 25점의 작품을 미디어아트로 재구성한다.

이번 전시는 인공의 빛과 소음으로 가득한 문명을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한 태초의 자연, 원시적 생명이 살아 숨 쉬던 자연으로 시선을 두는 작가의 작품을 서울의 대표적 도심인 강남대로에서 선보인다는 것이 특징이다.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강남대로를 지난다면 고개를 들어봐도 좋겠다. 매일 저녁 8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1시간 단위로 3분간 미디어플에서 펼쳐지는 자연을 통해 찰나의 정서적 치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글 김영민,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 사진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유혹은
한 해 반이
지나갔다는 것.
하여,
내 남은 나이와
세월도 반으로
접혔다는 것은

깨달게 되는 때,
계절도 절정에
다다라 찬란한
햇살 부서지는,
아래로 피보다
붉은 자음이
분갓으로 라오르네.

경복궁(景福宮): 조선왕조의 법궁(法宮/정궁)이다. 1395년 창건됐다가 임진왜란으로 전소됐고, 1868년 흥선대원군의 주도로 중건됐다. 일제강점기에 훼손돼 현재도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글 사진 김영호 서울문화재단 극장운영단장
※ 서울 철나의 본문의 서체는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의 필체를 본떠 만든 '박상원체'를 사용했습니다.



지하에서 감상하는 거대한 동물도감

서울 지하철과 동물들



심장생(당고개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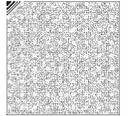
너무 익숙해 쉽게 눈길을 주지 못했던 서울 시민의 '매일의 공간' 지하철. 하지만 그곳이 알고 보면 '동물 예술 벽화'를 망라한 공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서울 지하철이 개통될 때 정성스럽게 붙여져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지하철 타일 벽화

로 새겨진 20세기 서울의 물상들을 탐험해 보자.

심장생

당고개역 정거장 2번과 3번 사이 출입구에

는 심장생을 주제로 한 거대한 타일 벽화가 있다. 심장생은 한국인에게 장수를 상징하는 열 가지 물상인 해·산·물·돌·달(또는 구름)·소나무·불로초·거북·두루미·사슴을 뜻한다. 당고개역은 4호선의 북쪽 시종착역이고 타일 벽화의 상태도 아주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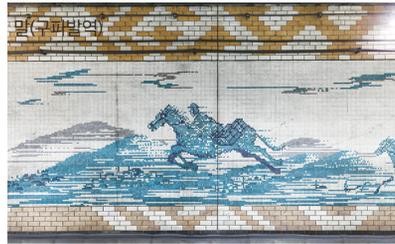
용

4호선 신용산역 정거장으로 내려가는 벽면에는 용이 새겨져 있다.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추상적으로 표현해 승객의 동선을 유도하고 있다. 용의 형태보다도 타일 재료 자체에서 용의 비늘 질감이 느껴지게끔 타일을 주문 제작했다고 한다. ‘용산’이라는 지명은 한강에서 두 마리의 용이 나타나 산이 된 곳이라는 데에서 유래한다고 전해진다.



호랑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4호선 구간의 양쪽 스크린도어 안쪽을 들여다보면 운동하는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 26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무악재역에는 길이 5m는 훌쩍 넘어 보이는 호랑이가 웅크린 채 숨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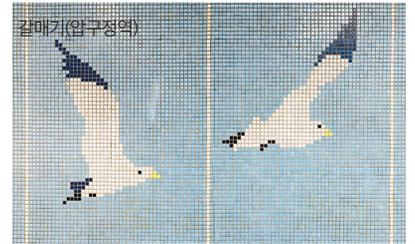
말

3호선 구파발역 정거장의 스크린도어 안쪽에는 세 마리의 파발마를 발견할 수 있다. ‘구파발’이라는 지명은 조선 중기부터 공문서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파발역’이 있었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현재의 택배 서비스와 유사한 것이다. 이로써 정거장은 과거 파발역이 있었다는 지명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한편 3호선의 반대쪽인 양재역 대합실에서는 한양을 오가는 말을 탄 선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학

혜화역에는 학이 있다. 한양도성 혜화문 천장에 그려져 있다는 봉황과 함께 길조인 학으로 하여금 혜화역사의 지하철 안전 운행과 무궁한 발전을 기렸다고 전해진다. 개통 당시에 승강장 진입부 천장에 혜화문 천장을 닮은 스테인드글라스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유지보수의 문제로 리모델링 후 교체돼 현재는 찾아볼 수 없다.



갈매기

압구정역 승강장 진입부에는 날아가는 갈매기들이 있다. 압구정의 본래 뜻은 ‘갈매기를 벗 삼아 지내는 정자’다. 요즘에도 여의도 인근 한강 변에서는 갈매기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동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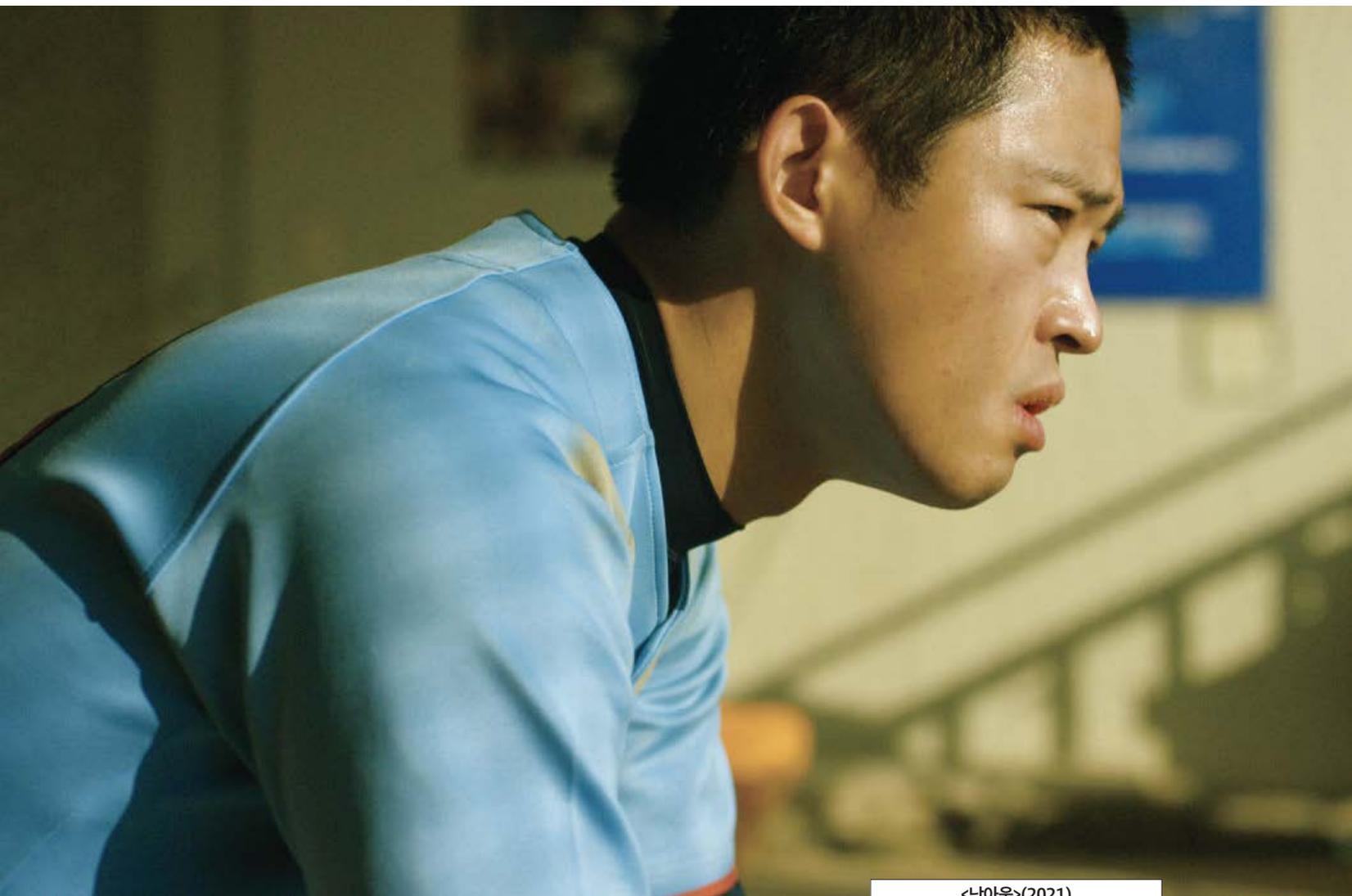


사당역 2호선과 4호선 사이 환승 통로에는 ‘동물원’이라는 벽화가 있다. 이 벽화에는 호랑이·물고기·사슴·해태·삼두조가 교차해 나열돼 있다. 특히 ‘삼두조’는 하나의 몸통에 머리가 세 개 달린 새이다. 이를 부적으로 만들면 삼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런 이미지를 차용한 것은 지하철의 안전과 안녕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글 이소영_인스타그램 @metroofseoul 운영자: 20세기 서울의 지하 공간과 이미지를 탐색한다. | 사진 석준기
※ 격월로 연재되는 지하 미감 어드벤처는 <동물들> <서울의 옛 풍경> <다이너믹 코리아> <무늬> <사라진 벽화들> 순서로 서울 지하철 벽에 새겨진 모양과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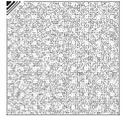
해진 꿈이 남긴 얼룩

이정곤 감독의 <낮아웃>



<낮아웃>(2021)

감독 이정곤
출연 정재광(광호), 정승길(승길), 김희창
(감독), 이규성(민철), 송이재(수현)



꼭 이뤄질 거라 믿고 오래 묵혀둔 꿈이 이뤄지지 않고 내 삶에 미련으로 남았을 때, 그 마음은 결국 우리를 해친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닳아 너털너덜해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꿈에만 집착하고, 정작 그 꿈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잊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계속 달려야 하기에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진심을 충분히 들여다볼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죽도록 노력하는 꿈

특별할 것 없던 열아홉 살 고교 야구선수 광호(정재광)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전 결승타의 주인공이 된다. 그래서 신인 드래프트를 기대했지만 결국 탈락하고 만다. 그리고 감독을 통해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광호는 불법 휘발유 파는 일을 하고, 끝내 위험한 선택을 한다. 이정곤 감독의 <낮아웃>은 광호가 야구를 한 이후, 가장 빛나는 순간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마치 폭신한 꽃길에 열릴 것 같은 기대를 해보지만 촉촉하게도 광호 앞에 열린 길은 계속 모래바람이 부는 흙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낮아웃>은 청춘의 꿈을 애처로워하지만 허망한 희망을 주지 않는다. 어쩌다 행운이 찾아올 수는 있어도 그 행운을 여신으로 떠받들어

계속 곁에 두기 위해서는 ‘실력’이 아닌 ‘돈’이 있어야 한다는 현실을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결국 광호에게 야구는 꿈꾸는 미래가 아닌, 극복해야 할 현실이 된다. 야구를 향한 순수한 열정, 송고함에 가까운 노력은 지독한 현실 앞에서 번번이 무너진다. 노력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돈’과 ‘인맥’이라는 단단한 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진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가짜 휘발유를 팔아 돈을 모은다. 잘못된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자신의 꿈을 외면할 수가 없다. 이미 바닥이 드러난 자신의 미래를 눈치채 버리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눈을 질끈 감아 스스로 속이는 법부터 배운다.

죽어도 안 되는 꿈

광호는 9회말에 진짜 역전을 이뤘지만 그의 인생에 역전은 없었다. 치열하게 노력해서 한 발, 극복해야 하는 장애를 넘어 한 발, 꿈이라고 생각했던 운동이 과제가 되고, 미래의 속제가 되고, 극복해야 할 장애가 되어가는 과정을 계단처럼 겪어 오른다. 그리고 문득 정신을 차려 보니 자신의 인생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정곤 감독은 부글부글 끓는 이야기, 생생하게 체감하게 만드는 주인공의 고통을 한 치의 동정이나 희망 없이 들여다본다. 그래서 결말

이 뻔해 보이는 광호의 미래는 관객에게 상처 입은 식도로 뜨거운 물을 삼키는 것 같은 통증을 준다.

죽도록 노력하지만 죽어도 안 되는 일 앞에서 끝까지 버티는 광호를 연기하는 배우 정재광은 이야기보다 앞서 관객을 연기로 설득한다. 좌절된 꿈 앞에서 어쩔 도리가 없어 불타는 가짜 휘발유라도 넣고 달리는, 고장 난 차 같은 인물 자체가 된다.

영화의 제목 <낮아웃>은 투수가 던진 세 번째 스트라이크로, 삼진 아웃이 됐지만 포수가 이를 받지 못해 삼진 아웃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끝나지 않은 영화의 제목처럼 이정곤 감독은 광호의 삶을 낙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함부로 그의 삶에 꼭 마침표를 찍지는 않는다.

영화 속 어디에도 아이들의 고장 난 몸과 갈거리 찢긴 마음을 기워주는 든든하고 단단한 어른이 없다는 것은 비극이다. 꿈을 지키기 위해 가짜를 팔아야 하는 기묘한 이야기. 낭만적 관조 한 줌 없이 바라본,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은 이물감 앞에서 이야기는 멈춘다. 온기가 없는 그늘 속에 갇힌 광호의 마음이 녹녹한 곰팡이처럼 얼룩으로 남는다.

글 최재훈·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 박도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 《나는 아팠고, 어른들은 나뻐다》 등이 있다.

거문고산조의 양대 산맥

신래동과 한갑득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다. 거문고산조 국가무형문화재 신래동 명인^{1910~1977}과 한갑득 명인^{1919~1987}의 삶을 살펴보면 인생이란 돌고 도는 것임을 알게 된다.

시작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전라북도 익산 태생의 신래동은 흙수저, 전라남도 광주 태생의 한갑득은 금수저로 태어났다. 국악과 무관한 신래동은 농사를 지었고 풍류를 근근이 익히면서 꿈을 키웠다. 국악 명가에서 태어난 한갑득은 당대 최고의 가야금 명인 안기옥^{1894~1974}을 사사했다. 신래동과 한갑득, 두 사람에게는 똑같은 소원이 있었다. 거문고산조의 창시자 백낙준^{1884~1933} 문하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충청남도 강경(현재 논산시 강경읍)에 사는 백낙준을 찾아갔다.

여기서 처음으로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린다. 백낙준은 신래동을 제자로 받아들였다. 백낙준은 ‘6척 장신’에 손마디가 붉은 신래동을 마음에 들어 했다. 반면 나이도 어리고 ‘5척 단신’에다가 손마디가 고운 한갑득에게는 “그냥 가야금을 하라”고 말하며 돌려보냈다. 한갑득 인생에서 최초의 좌절이었다. 그러나 한갑득은 포기하지 않았다. 백낙준의 제자 박석기^{1899~1952}를 찾아가 거문고산조를 익혔다.

백낙준에게 거문고를 잘 배운 신래동은 상경해서 ‘조선성악연구회(이하 성연)’에 입성한다. 거문고산조도 잘 타고 판소리도 곧잘 하는 신래동은 ‘성연’의 명인, 명창에게 두루 사랑을 받았다. 경성방송국 JODK을 제집 드나들 듯했다. 1938년 2월 20일, 신래동에 의해 ‘거문고병창’이 처음 방송에 소개됐고, 그의 인기는 최고에 달했다. 한갑득도 뒤이어 상경하고 ‘성연’에 뒤늦게 입단했다. 그때 신래동은 이미

‘성연’을 대표하는 15명의 이사진에 포함돼 있었다.

이랬던 두 사람의 운명이 또다시 바뀐다. ‘성연’이 내부 갈등으로 유명무실해지자 신래동이 졸지에 실직자 신세가 된 것이다. 반면 한갑득은 스승인 박석기가 만든 ‘화랑창극단’에 합류한다. 금상첨화로, 여기서 창극의 대가 박동실^{1897~1968}을 만나면서 예술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1948년 여성국극이 시작됐다. 여성국극은 1950년대 최고의 흥행물이었다. 그중에서도 여성국극단 ‘삼성’이 크게 인기가 있었다. 박보아·박옥진·조양금, 세 명의 스타가 있어 ‘삼성^{三星}’인데 박보아의 남편이 한갑득이었다. 당시 여성국극의 인기는 대단해서 돈을 갈퀴로 긁



거문고 명반, 신래동 명인과 김재선 고수의 <거문고와 가야금 병창>. 1956년 미국공보원에서 두 사람이 찍을 이뤄 연주했다.



한갑득 명인

어 쌀가마니에 담았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다. 대한민국 국악인 중에서 한때 돈이 가장 많았던 인물이 한갑득이었다. 이즈음 신쾌동도 또 다른 국극단의 반주자로 합류했지만 신통치 않았다. 거주지를 전주로 옮겨 남의 집 문간방에서 거문고를 가끔 가르치는 신세가 됐다.

각각의 삶이 벤 각각의 가락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준 인생일대의 희비가 찾아온다. 1957년, 여성국극으로 큰돈을 번 '삼성'은 국극 영화 <대춘향전>을 제작해 개봉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흥행에서 참패한다. 국극에서 번 돈을 영화 한편으로 다 날린 셈이다.

이즈음 전주와 서울을 오가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던 신쾌동에게 반가운 요청이 들어왔다. 서울에 있는 미국공보원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USIS에서 신쾌동에게 거문고 연주회를 개최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당시 USIS는, 미소 중심의 냉전체제가 고착되면

서 미국이 우방 국가에 주는 문화적 혜택이었다. 미국의 문화 보급이 주요 업무였지만 각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역할도 병행했다.

1956년 7월 18일, 신쾌동은 미국공보원에서 독주회를 연다. 이것이 현대적 의미의 최초 거문고 독주회다. 신쾌동은 장구의 김재선과 콤비를 이루면서 1960년대 거문고산조의 전성기를 만들어낸다.

1967년 6월 23일, 거문고산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신쾌동이 '인간문화재'가 되는 순간이었다. 이때 신쾌동, 한갑득 두 사람이 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신쾌동만 단독으로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당시 한갑득 명인이 느꼈을 섭섭함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아쉬움 때문이었을까? 1969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가야금산조는 두 사람(김윤덕, 성금연)이 기예능 보유자가 되어 전수됐다. 오래도록 한갑득 명인은 힘든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한갑득 명인은 출중한 제자를 길러내기 시작한다.

1977년, 신쾌동 명인이 타계했다. 이듬해인 1978년, 한갑득 명인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1978년 2월 24일, 한갑득 명인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한 중요한 이유는 이렇다. "거문고산조는 백낙준을 시작으로 유파를 달리해 전승됐다. '신쾌동류'와 '박석기류'로 대별되는데, 신쾌동류는 이미 지정됐으나 박석기류는 지정되지 못했다. 한갑득이 이를 발굴해 지정한다."

'인생살이 새옹지마'라고 했던가. 신쾌동 명인이 타계하기도 했지만 한갑득 명인을 지정한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박석기류의 유일한 인물이라는 데 있다. 지금은 우리가 '한갑득류'라고 한다. 하지만 국가무형문화재 제도 속에서는 박석기류이고 이것이 발전돼 한갑득류가 된 셈이다.

신쾌동류와 한갑득류는 거문고산조의 양대 산맥이다. 어느 것이 더 좋다는 말이 불가하다. 각각의 산조에는 두 명인의 기쁨과 슬픔이 고스란히 가락으로 배어 있다. 두 명인의 삶이 그렇듯이 신쾌동류는 꽃꽂하고, 한갑득류는 구성지다.

글 윤종강, 국악 평론가 | 사진 제공 윤종강



다. 낯선 환경과 새로운 얼굴을 궁금해하고, 자신에게도 어떤 역할이 주어지기를 바란다. 당연하게도 사회는 어린이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직 알지 못해 기대할 수 없었던 다정함을 경험하게 하고, 존중받는 가운데 세상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님에도 나는 서점주가 아이에게 눈을 맞추는 저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김소영의 에세이 《어린이라는 세계》를 읽으며 깨달은 것은 어린이를 존중하는 것만이 아이를 대하는 유일하게 옳은 태도라는 것이다. 에피소드가 실린 글의 제목은 다름 아닌 <어린이의 품격>이다. 우리 사회는 품격 있는 어린이를 바라지만 어린이에게 기회를 제공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작가는 “정중한 대접을 받는 어린이는 점잖게 행동한다”고 말한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이다. 어린이는 누구나 어른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 눈살 찌푸리게 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그는 실패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한 경험으로 존중받기를 포기한 존재일 것이다.

“노, 키즈 존이라고요? 아니, 왜요?”

“그게 그러니까…….”

귓속에 벌이 들어간 것처럼 말소리가 웅웅거렸다. 언니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내 몸은 점점 뻗뻗해졌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싶었다. 하지만 바로 알 수 있었다. 내가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들어오지 마시오, 라고 적힌 곳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나는 엉거주춤 일어섰다.

이숙현, 《우리 빌라, 오 키즈 존》 중

어린이의 몸집과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마저 작은 것은 아니다. 소외될 때 느끼는 당혹스러움과 비참함을 어른과 다른 방법으로 피해 갈 리 없다. 굳은살도 없고 옹골 그름을 판단할 충분한 경험이 없어서 더 크게 상처받거나,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알게 되는 더 큰 폭력의 피해자가 된다. 이숙현의 동화 《우리 빌라, 오 키즈 존》은 노 키즈 존을 마주한 심경을 어린이 화자의 시선에서 그린다. 주인공 연서는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켜보며 방문할 날을 기대하던 식당에서 차별을 경험한다. 노 키즈 존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았지만 설레며 찾은 공간이 자신을 밀어내고 있음을 온몸의 감각으로 알아차린다. 연서는 먹지도 못하고 쫓겨났는데 구토를 하고 그 경험을 소화하느라 앓는다. 다행히도 연서는 너무나 용감한 어린이여서 자기 역할을 찾아 실행에 옮기고, 또 너무나도 다행히 다시 상처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배제의 경험으로 아플 수 있는 게 어린이의 실재라면 현실에 자기 힘으로 부딪혀보는 것은 동화의 힘으로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게다가 현실을 바꾸는 것은 어린이의 역할이 아니다. 사회가 아직 인지하지 못한 어린이의 권리를 어린이의 목소리를 통해 깨달을 수는 있다. 그러나 무엇이든 가능한 세계를 안겨주지는 못할망정 음식점 입장마저 제한하는 것이 노 키즈 존이다. 이에 대해 어린이마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면 그 현실은 부끄럽고 한심한 것일 뿐이다. 어린이에게 너그러워질 필요도 없다. 그저 편견을 거두기를, 연서의 용기에 힘입어 적어본다.

연극人n

큐와 큐 사이, ‘적당함’의 시간 속에서

하우스어셔, 배우와 관객 사이의 존재

암전, 막 그리고 커튼콜curtain call. 공연이 끝나면 조명이 환히 무대 곳곳을 비추고 커튼콜이 시작된다. 약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이어진 공연에 대한 박수. 객석에서 공연을 본 관객을 향한 인사. 커튼콜이 끝나고 다시 암전. 그리고 프리셋 조명과 함께 객석등이 켜지면 관객은 그제야 퇴장한다. 오랫동안 이어진 약속 신호cue인 셈이다.

공연을 열심히 진행한 배우와 스태프, 그리고 공연을 열심히 관람한 관객에게 커튼콜은 다소간의 긴장을 내려놓고 박수와 인사를 주고받는 시간이다. 반면 이 시간에 하우스어셔house usher(공연장에서 관객을 안내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는 자리에서 일어나 긴장된 눈으로 객석을 살핀다. 하우스어셔에게 커튼콜은 곧 관객 퇴장을 도울 준비를 해야 하는 신호cue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연극 공연에서는 커튼콜 사진 촬영이 가능하지만 종종 스포일러 방지나 저작권의 이유로 커튼콜 촬영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사진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연 시작 전에 관객에게 거듭 안내하지만 미처 안내가 가닿지 못한 관객이 있기 마련이다. 그럴 때면 하우스어셔는 커튼콜 중에도 바빠 움직이며 안내하기도 한다. 한편 화장실이나 이후 일정이 급해 커튼콜이 채 끝나기도 전에 퇴장하는 관객이 있기도 한데 커튼콜 중에는 객석이 아직 어둡기에 관객이 넘어지지 않도록 서둘러 랜턴을 꺼내 비추기도 한다. 또 장애인 관객이 있는 공연에서는 장애인 관객의 퇴장을 신속히 안내할 수 있도록 객석의 위치를 재차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남산예술센터에서 하우스어셔로 오래 일했지만 객석 포지션에서 근무하는 날이면 늘 긴장되는 순간이 있다. 바로 객석등을 켜는 순간이다. 남산예술센터는 극장으로 들어가는 메인 입구가 두 군데, A문과 C문으로 나뉘어 있어서 각 문에 있는 어셔는 동시에 객석등을 끄고 켜야 했다. (물론 하우스매니저의 무전 신호가 있지만) 공연이 끝나고 프리셋 조명이 들어온 후 ‘적당한’ 여운을 남기고 객석등이 켜져야 하는데, 이 ‘적당함’의 큐란 공연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활기찬 박수와 함께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커튼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적당함’의 감각을 잘 파악할 수 있었지만 무거운 분위기의 공연이나 커튼콜이 없는 공연의 경우 이러한 큐와 큐 사이의 ‘적당함’은 미궁에 빠져든다.

〈휴먼 푸가〉(2019)가 특히 그러했다. 〈휴먼 푸가〉는 기존 A문과 C문이 아닌 무대 중앙 문을 입구로 사용하고 객석도 무대 양 옆에 마련돼 있었다. 관객이 들어온 입구가 굳게 닫히는 것으로 공연은 시작되고,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 따라서 퇴장에 관객은 계단을 올라 A문과 C문으로 나가야 하는 형태였다.

들어온 곳과 나가는 곳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객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우스어셔는 공연이 끝나면 무대 아래까지 내려와 퇴장로를 안내해야 했는데 〈휴먼 푸가〉의 경우 커튼콜 없이 배우가 퇴장하기 때문에 객석등을 켜는 순간도, 무대 아래로 내려가 관객에게 제스처를 취하는 순간도 무척 긴장됐다. 늘 객석 뒤에서 기척을 감추고 있는 하우스어셔가 관객 앞에 ‘등



1 영상 시청이 끝나면 오른쪽 비상구 아래 검은 문이 열린다.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이강물



2 커튼콜 없이 배우들이 먼저 계단을 올라 C문으로 퇴장한다.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이승희

장'함'으로써 공연이 끝났음을 알렸기 때문이었다. 너무 일찍 무대 아래로 내려가자니 관객의 여운을 중단시켜 버리는 것만 같고, 너무 오래 기다리자니 관객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아주 모호한 '적당함'의 시간.

하우스어셔가 공연을 함께 볼 수 없어서 더욱 안개 속에서 업무를 진행했던 <천사—유보된 제목>(2017)도 떠오른다. <천사>는 매회 단 한 명의 관객만 관람하는 공연으로, 천사로 분한 퍼포머의 안내에 따라 관객 1인이 극장의 이곳저곳을 이동했다. 관객의 마지막 도착지는 남산예술센터 사무동 건물 5층 다락으로, 관객이 자리에 앉아 VR 기기를 쓰고 내레이션을 들으며 영상을 시청하면 어느덧 천사는 홀연히 사라지고 관객은 홀로 남게 된다.

다락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하우스어셔는 천사 퍼포머의 퇴장을 신호로 VR 영상 재생 시간을 타이머로 재며 관객이 영상 시청을 마칠 때즈음 문을 열어 퇴장 안내를 도와야 했다. 천사와 단둘이 극장 곳곳을 거닌 관객의 체험에 갑작스럽게 새로운 사람이 끼어드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을까 고민했던 기억이 난다.

매 공연 커튼콜마다 객석 안에 존재하지만 공연을 관람하는 존재가 아닌 관객을 안내하는 존재로서의 하우스어셔. 마음에 오래도록 남은 공연이 있지만 늘 근무 중이었기에 한 번도 커튼콜에 박수를 보낼 수 없었다. 하우스어셔를 그만뒀고, 또 남산예술센터 운영은 종료했다. 이 지면을 통해 남산예술센터를 거쳐 간 모든 공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글 윤소희, 남산예술센터와 삼일로창고극장에서 하우스어셔로 근무했다. 지금은 느릿느릿 글을 쓰고 연극을 만들고 있다.

※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연극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로서의 춤, 예술에 점수 매기기

2021년은 한국이라는 특수한 지형 안에서 춤에 특별한 해였다. 한창 무덥던 여름, Mnet에서 방영한 <스트리트 워먼 파이터>(이하 <스우파>)라는 프로그램이 뜨거운 여름 날씨처럼 여러 매체를 달궜기 때문이다. <스우파>가 지닌 몇 가지 특별한 요소는 대중의 관심을 단숨에 '춤'으로 돌리기에 충분했다. 2022년 초 방영을 시작한 JTBC의 <소다운> 역시 춤의 커다란 맥락에서 또 다른 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장르적으로 <스우파>가 스트리트댄스를 주제로 크루 간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었다면, <소다운>은 브레이킹(Breaking(비보잉B-Boying으로도 부른다))이라는 장르에 집중해 브레이킹 댄서, 브레이커(Breaker)와 그 크루가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배틀'이라는 경쟁의 양상이 이미 내재된 브레이킹은 대결을 펼치는 형태의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루기에 더없이 좋은 소재였을 것이다.

한국에서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조금 독특한 형태로 춤이 대중적으로 다시금 새롭게 인식되기 전, 2020년 해외에서 놀랄 만한 소식이 들려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브레이킹을 2024년 파리 올림픽의 새 정식 종목으로 최종 채택한 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국제 메이저 비보잉 대회를 비롯한 수많은 비보잉 대회가 존재하고 있기에 승패를 정하고 경합하는 비보잉이 '메달을 따는' 것은 어색하지 않으나 춤이 스포츠의 영역 안에 들어가 스포츠가 요구하는 '몸' 안에 자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예술'로 인식해 왔던 어떤 특정한 형태의 움직임을 규율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IOC의 브레이킹 종목 포함 결정은 아마도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중적 선택이겠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춤과 몸에 대한 질문은 예술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자못 흥미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스포츠란 신체 기술을 사용하는 경쟁적 신체 활동 혹은 경기의 형태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말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신체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와 춤은 동일한 지점에서 출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와 춤의 다른 지점은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경쟁적 활동'이라는 특성에 있다. 춤이 일련의 예술적 성취를 일궈내기 위해 노력하는 몸의 활동이라면, 스포츠는 신체의 활용을 극대화해 특정한(혹은 이미 알려진 것을 넘어서는) 기록을 창출해 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참여자가 끊임없이 경쟁하고 스스로 향상하는 과정을 거친다. 스포츠는 확실히 판별 가능한 수치(시간, 횟수, 승점 등)를 통해 우위를 가리고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는 몸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술이 스포츠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필연적으로 어떤 난감함이 발생한다. 수치화가 불가능한 예술을 점수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누가 이것을 측정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육상 선수가 결승선을 몇 초에 넘었는지 확인하는 초시계를 구입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일이다.

이렇게 발생하는 난감한 문제, 예술과 탁월함 사이에서 불거지는 고민을 안고 있는 스포츠가 의외로 올림픽 중



자유로움, 배틀, 즉흥성 등의 특성을 가진 브레이킹 ©Ijja Tulit on Unsplash

목 안에 이미 포함돼 있다. 피겨스케이팅과 체조가 바로 그것이다. 두 스포츠는 그 안에서 기술성과 예술성을 엄격히 분리하고 '탁월함'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변화해 온 역사가 있다. 그만큼 어떤 활동의 예술성을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임과 동시에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브레이킹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자유로움, 배틀, 즉흥성 등의 특성을 가진 춤이 전 세계인에게 공개되는 '공정성'의 규율 아래 놓이게 됐다. 올림픽 안에서 춤은 어떤 것이 될까? 스포츠로서 브레이킹이라는 종목은 앞으로 경험에 의해 규칙과 규율을 다듬어나갈 것이다. "어떤 몸이 더 예술적인가?" 이 질문은 춤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장르로서 정립된 근대 이래 아주 오랫동안 춤의 곁을 맴돈 질문이다. 여기에는 어떤 몸이 탈락하고 어떤 몸이 승리하는지를 결정하는 경연의 묘가 숨어 있다. 궁극적으로는 몸과 예술을 선별해 내며 어떤 특정한 형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권력이, 예술의 이름으로 예술을 규제해 온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춤을 보고 어떤 몸을 본 뒤에 인식이 정해지는 것은 역사에 의해서다. 그 아래에서 틀에 틀입해 새로운 구멍을 내는 일은 '몸의 규율'을 되짚어나가는 데에서 시작할 것이다. 브레이킹이라는 춤이 어떤 '스포츠'가 되어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바로 거기에서 말이다.

글 조형빈_웹진 [춤in] 편집위원 | 사진 unsplash.com

※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춤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FAC 문화예술공간

- 금천예술공장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삼일로창고극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교육센터
- 시민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학창작촌
- 예술청 / 대학로센터
- 잠실창작스튜디오
- 청년예술청
- SFAC 행사·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 해당 공연·전시행사 등의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Mon	Tue	Wed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파랑새, 날다> ● 공연 <빈 심포니 내한공연> ● 공연 <한재민 첼로 리사이틀> ● 연극 <나를 고백하다>(~6. 5) ● 연극 <미래에 사는 남자 과거에 사는 여자>(~6. 12) ● 전시 <기억의 재탄생>(~6. 7)
6	7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너무 놀라지 마라>(~6. 6) ● 연극 <노르망디>(~6. 6) ● 뮤지컬 <아리아라리>(~6. 6) ● 공연 <유러피안 재즈 트리오 내한공연> ● 전시 <빅 웨스트>(~6.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심준호, 송연민 연주회> ● 공연 <소프라노 조윤미 독창회> ● 공연 <정수진 첼로 독주회> ● 공연 <윤수정 피아노 독주회> ● 공연 <매현윤봉길의사 상하이이거 90주년 기념 음악축제> ● 연극 <뱅크 뱅 레슨>(~6. 12) ● 뮤지컬 <동백꽃 피는 날>(~7.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소프라노 김은경 독창회> ● 공연 <김정원과 함께하는 여민락콘서트> ● 공연 <소프라노 조은혜 독창회> ● 무용 <고집쟁이 딸>(~6. 11) ● 연극 <무지의 베일>(~6. 12) ● 연극 <의자는 잘못었다>(~6. 12) ● 연극 <다락, 굵은 얼굴>(~6. 19)
13	14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베이스 이형욱 독창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김종균 작곡 발표회> ● 공연 <박규희, 박종성 콘서트> ● 공연 <서울시합창단 제128회 특별연주회>(~6. 15) ● 무용 <한국을 빛내는 해외무용스타 스페셜 갈라>(~6. 15) ● 연극 <똥날>(~6. 26) ● 연극 <비평가>(~8.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악 <황홀경> ● 연극 <노이즈캔슬링> ● 연극 <살고 있는가>(~6. 19) ● 연극 <발사 6개월 전>(~6. 26) ● 연극 <파묻힌 아이>(~6. 26) ● 연극 <나도 이제 결혼하고 싶다>(~6. 30) ● 뮤지컬 <블루맨그룹>(~8. 7)
20	21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배유미 첼로 독주회> ● 전시 <빛, 아름답고 찬란한>(~6.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 <포미니츠>(~8.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쥐뿔>(~6. 26) ● 연극 <컴플렉스 페스티벌>(~6. 26) ● 연극 <통속소설이 머 어때서?>(~7. 3) ●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8. 21) ● 뮤지컬 <베어 더 뮤지컬>(~9. 18)
27	28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천현지 바이올린 독주회> ● 공연 <예림희 피아노 듀오 시리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용 <허난설현-수월경화>(~6. 29) ● 전시 <TOUCHSTONE>(~6.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디나미스 앙상블 정기연주회> ● 공연 <김희정 피아노 독주회> ● 연극 <에이치가 들려주는 이야기>(~7. 3) ● 공연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제92회 정기연주회>





Thu	Fri	Sat	Sun
<p>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리벤토 현악사중주 정기연주회> ● 국악 <박솔지 해금 독주회> ● 공연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6. 5) ● 연극 <민주주의 여행연습>(~6. 12) ● 연극 <한여름밤의 꿈>(~6. 12) ● 전시 <제9회 아마도애뉴얼날레, 목하진행중>(~6. 2) 	<p>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AYAF 앙상블 콜라보네이션> ● 연극 <오아시스>(~6. 12) ● 연극 <조선의원>(~7. 3) ● 뮤지컬 <이퀄>(~7. 24) ● 전시 <영혼을 수놓은 초상>(~6. 3) 	<p>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오선지 걸여가는 작곡가>(~6. 4) ● 무용 <소월의 꿈> ● 연극 <찰리체플린의 잃어버린 지팡이>(~6. 5) ● 전시 <멈출 새도 없이 이 말이 튀어나와 버렸지요>(~6. 4) ● 전시 <내가 망한다고 했지!>(~6. 4) ● 전시 <낮선 이로부터의 위안>(~6. 4) ● 전시 <Sunday>(~6. 4) 	<p>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 <최후진술>(~6. 5) ● 연극 <가짓말>(~6. 5) ● 연극 <방문자들>(~6. 5) ● 연극 <나는 쓰다녔지>(~6. 5) ● 국악 <김무길 거문고 연주회> ● 전시 <땅, 사람, 관계탐구>(~6. 5) ● 전시 <중증무진>(~6. 5) ● 전시 <Nocturnal>(~6. 5)
<p>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용 <플라멩코 마리아호세프랑코 내한 공연>(~6. 9) ● 공연 <장하얀 첼로 독주회> ● 무용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6. 10) ● 연극 <연상의 여자>(~6. 12) ● 무용 <김주원의 레베랑스>(~6. 12) ● 연극 <이 구역의 이기적인X>(~7. 3) 	<p>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맛있는 고메 클래식> ● 연극 <무니의 문>(~6. 12) 	<p>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피아노 갈라 콘서트> ● 무용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6. 12) ● 뮤지컬 <무적의 삼총사>(~7. 31) ●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9. 4) ●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12. 31) ● 전시 <THE COLOURS>(~6. 11) 	<p>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벚꽃동산>(~6. 12) ● 연극 <그대는 봄>(~6. 12) ● 공연 <노예진 바이올린 독주회> ● 공연 <소프라노 정꽃님 독창회> ● 연극 <불호자는 옵니다> ● 공연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피아노 리사이틀> ● 공연 <안 라시에츠키 피아노 리사이틀> ● 전시 <단단한 풍경>(~6. 12)
<p>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하멜린>(~6. 19) ● 연극 <인형들의 집>(~6. 27) 	<p>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소프라노 이다미 독창회> ● 연극 <소프루>(~6. 19) ● 연극 <어느 날 갑자기>(~6. 26) ● 연극 <발이 되기>(~6. 26) 	<p>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악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 공연 <최인 기타 리사이틀> ● 무용 <와이즈발레단 비타>(~6. 19) ● 뮤지컬 <유진과 유진>(~8. 28) 	<p>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 <미오 프라텔로>(~6. 19) ● 연극 <클럽 베를린>(~6. 19) ● 공연 <이민영 피아노 독주회> ● 전시 <UNFOLDING DUOLOGUE>(~6. 19) ● 전시 <2022 금호영아티스트>(~6. 19) ● 전시 <먼길 이야기>(~6. 19)
<p>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파우스트: 악마의 속삭임>(~6. 26) 	<p>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송사비의 클래식 음악야화> ● 무용 <회오리>(~6. 26) ● 전시 <골목에 들어가기>(~6. 24) ● 예술교육 <서울예술학교, 오늘> 	<p>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보이스 그리고 리스트>(~6. 25) ● 공연 <앙상블 우리 제12회 정기연주회> ● 국악 <제352회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 국악 <절창 II>(~6. 26) ● 연극 <내일 바다에>(~7. 10) ● 전시 <강석영 초대전>(~6. 25) ● 전시 <이상한 고리: 마르셀을 위하여>(~6. 25) ● 축제 <여름마중> 	<p>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6. 26) ● 공연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 내한공연> ● 전시 <언커머셜 한국 상업사진, 1984년 이후>(~6. 26)
<p>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KBS교향악단 제779회 정기연주회> ● 무용 <은미와 영규와 현진>(~7. 3) ● 연극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광 소리 한 번 없이 흐느낌으로>(~7. 9) ● 뮤지컬 <비더슈탄트>(~9. 25) 			





이달의 서울문화재단 | 서울문화재단

공연 <서울 스테이지11>

서울문화재단은 매달 첫 번째 목요일 오전 11시에 예술공감 콘서트 <서울 스테이지11>을 개최한다.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예술 창작공간을 무대로 클래식, 무용, 북 콘서트, 국악과 재즈의 만남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서울시민에게 선사한다.

일시 6월 2일(목) 오전 11시 | 장소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금천 예술공장, 대학로센터, 문래예술공장,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무용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 용산, 시민청, 연희문학창작촌, 청년예술창) | 관람료 무료 | 문의 및 신청 02-2676-6816, www.sfac.or.kr



구로문화재단 | Guro Cultural Foundation

어린이공연 <꿈꾸는 극장>

지난해 여름, 많은 어린이에게 사랑받은 <꿈꾸는 극장>이 다시 돌아왔다. 올해는 어린이 연희극, 클래식 음악동화, 관객참여형 연극, 오리지널 과학마술공연 등 네 가지 다채로운 공연으로 자라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일시 6월 4, 11, 18, 25일(토) 오전 11시, 오후 2시 | 장소 구로꿈나무극장 | 관람료 1만 원 | 문의 02-830-2561~2/2508



이달의 서울문화재단 | 서울문화재단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봄소풍 프로젝트 <여름마중>

다양한 지역 예술가의 공연 <여름마중>이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야외 공간에서 펼쳐진다. 참여 예술가의 작품과 활동 등을 소개하는 부대행사 아트마켓도 함께 운영한다.

일시 6월 25일(토) 오후 2시 | 장소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야외 수조 | 관람료 무료 | 문의 02-2697-0016



구로문화재단 | Guro Cultural Foundation

오류아트홀 월별시리즈III <유니버설발레단 발레갈라>

한국 발레를 개척해 온 유니버설발레단의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세기를 넘어 관객을 매혹하는 고전 명작부터 창작 작품까지 총망라한 감동의 무대가 펼쳐진다.

일시 6월 24일(금) 오후 7시 30분 | 장소 오류아트홀 | 관람료 2만원 | 문의 02-2614-7969



오픈 클래스 <서울예술학교, 오늘>

하반기에 열릴 서울시민예술대학 기획축제의 프리뷰 행사다. 참여작가 워크숍, 아티스트 토크, 미니 공연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알찬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일시 6월 24일(금)~25일(토) | 장소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 관람료 무료 | 문의 02-758-2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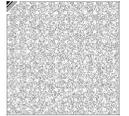


구로문화재단 | Guro Cultural Foundation

브런치콘서트 <이달의 공연>

6월에는 가수 하림과 블루카멜양상블이 '평화의 노래'라는 주제로 무대를 준비한다. 발칸, 중앙아시아, 중동, 집시 음악 등의 월드뮤직과 국악을 통해 전쟁이 없는 전 세계 평화와 자유를 기원하며 음악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일시 6월 28일(화) 오전 11시 | 장소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 관람료 1만 원 | 문의 02-2029-1721



서초문화재단*

온라인 공연 해설이 있는 발레 <클래식발레 마스터피스 I >

발레마스터가 들려주는 흥미진진한 명품 발레 갈라 콘서트다. 러시아 민화를 바탕으로 한 <곰사냥이 망아지>, 러시아 발레의 아버지인 마리우스 프티파가 안무해 러시아황실극장에서 초연된 <할리퀸아드> <해적> <라 바야데르>의 대표 장면을 만나볼 수 있다.

일시 6월 2일(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서초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 문의 02-3477-2805, www.seochocf.or.kr



연극 <연극열전9 - 보이지 않는 손>

파키스탄 무장단체에게 상사 대신 납치 당한 미국인 투자 전문가 닉.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석방이 어려워지자 닉은 자신의 몸값인 천만 달러를 직접 벌겠다는 위험한 거래를 제안한다.

일시 4월 26일(화)-6월 30일(목) 화-수-금요일 오후 8시, 목-오후 4시-8시, 토-일 오후 3시, 6시 30분 | 장소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2관 | 대상 만 14세 이상 | 관람료 R석 5만 5천 원 / S석 4만 4천 원 | 문의 02-766-6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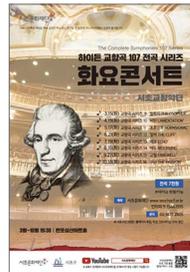


서초문화재단*

온라인 공연 해설이 있는 피아노 교수음악회 <여덟 손의 향연>

최고의 역량을 갖춘 국내외 우수 피아노교과 교수 겸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피아노 콘서트다. 두 대의 피아노에서 네 명의 연주자가 연주하는 독특한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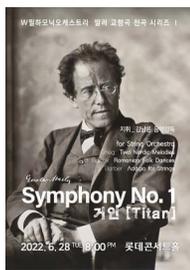
일시 6월 11일(토) 오후 3시 | 장소 서초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 문의 02-3477-2805, www.seochocf.or.kr



화요콘서트 <하이든 교향곡 전곡 시리즈 12>

반포심산아트홀에서는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 탄생 300주년을 기념해 매달 '화요콘서트'를 통해 107개의 하이든 교향곡을 4곡씩 선별해 들려주고 있다.

일시 6월 21일(화) 오후 7시 30분 | 장소 반포심산아트홀 | 대상 8세 이상 | 관람료 7천 원 | 문의 02-3477-2805, www.seochocf.or.kr



W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말러 교향곡 전곡 시리즈 I <Symphony No. 1 [Titan]>

김남윤 음악감독이 지휘를 맡고 W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았다. 오케스트라 음악의 꽃인 말러 교향곡 전곡 중 1번 <거인 (Titan)>을 만나볼 수 있다.

일시 6월 28일(화) 오후 8시 | 장소 롯데콘서트홀 | 관람료 R석 8만 원, S석 6만 원, A석 4만 원, B석 2만 원 | 문의 02-3442-4285, www.wphil.kr



전시 <기원>

다양한 시각매체로 구성된 이색 전시다. 시가 시각적, 인지적 진화를 거듭한다는 사변 소설 형식의 내러티브를 사용한다. 신형록이 기록하고 조민정 작가가 참여한다.

일시 4월 4일(월)-6월 24일(금) 오전 9시-오후 6시(토-일-공휴일 휴관) | 장소 심산문화센터 B1 서리풀 休 갤러리 | 대상 전체관람가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477-2074, www.seochocf.or.kr

서초문화재단*



서초문화재단

전시 <RE:컨택트>

서초구를 기반으로 성장한 예술가 집단이 시간에 흐름에 따라 끊긴 과거를 연결하고 다시 함께하고자 기획한 전시다. 김종민, 김중혁, 김단비, 박영인, 선병수, 손서영, 양수연, 성애리, 이광열, 이재희, 최진영 등의 작가가 참여했다.

일시 5월 28일(토)-6월 25일(토) 오전 11시-오후 7시(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 장소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 대상 전체관람가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477-2074, seoripulgallery.com



디자인 워크숍 <크리에이터 워크숍>

서울인쇄센터는 6월 8일(수)까지 <크리에이터 워크숍>에 참여할 디자이너를 모집한다. '축제와 인쇄물'이라는 주제로 디자인 아이디어와 제작 역량을 보유한 참여자를 모집해 인쇄 관련 워크숍 및 인쇄업체 멘토링을 거쳐 인쇄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시 6월 21일(화)-7월 29일(금) | 장소 서울인쇄센터 | 참가비 무료 | 문의 bit.ly/크리에이터워크숍



전시 <발견! 거리의 낱말>

일상 속 거리를 거닐며 발견하는 수많은 시각적 결과물은 때로는 이미지로, 때로는 텍스트로, 때로는 정보 혹은 감정으로 보는 이에게 다가간다. 신촌 바람산 진입로에 펼쳐진 가설 구조 조합을 통해 낱말 속에 숨은 기억을 떠올리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일시 3월 22일(화)-6월 30일(수) | 장소 신촌문화발전소 야외공간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30-4393



2022 하반기 서대문구 독립출판 창작자 양성 프로그램 <글 쓰는 워크숍>

서대문구 지역주민과 대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글 쓰는 워크숍>을 진행한다. 총 8주 과정이며, 마인드 트레이닝부터 자기표현적 글쓰기, 쉽고 명확하게 글쓰기, 글의 윤곽잡기, 편집하기, 퇴고하기 등의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

서대문구

일시 6월 22일(수)-8월 10일(수) 오후 7시-9시 30분 | 장소 파랑고래 3층 꿈이룸홀 | 문의 02-3140-8343



문화예술연계강좌 <창작자의 도구함: 디지털 컴퓨팅을 활용한 일상의 예술>

컴퓨팅 관련 다양한 기술과 표현 방법을 익혀 원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도록 돕는 문화예술연계강좌다. 워크숍을 통해 익힌 기술과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해보는 실습 시간도 마련돼 있다.

일시 6월 2일(목), 9일(목), 15일(수), 23일(목), 30일(목) 오후 4시 | 장소 신촌문화발전소 2층 스튜디오 창 | 참가비 무료 | 준비물 개인 노트북, 아두이노 UNO Rev3 | 문의 02-330-4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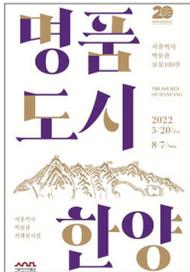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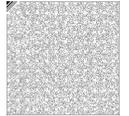


반 고흐 레플리카 체험전 <춤추는 빛, 영혼의 소리>

중랑문화재단에서 2022년 봄 기획전으로 반 고흐 레플리카 체험전 <춤추는 빛, 영혼의 소리>를 준비했다. 반 고흐 원작의 색감과 디테일을 그대로 살린 레플리카 작품 50여 점을 전시한다.

중랑문화재단

일시 4월 27일(수)-6월 30일(목) 오전 10시-오후 6시(월요일 휴무) | 장소 중랑아트센터 제1전시실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407-6523



개관 20주년 특별전 <명품도시 한양>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특별전으로 1996년 서울역사박물관이 유물 수집을 시작한 이래 수집한 소장품 중 고지도, 회화, 서예, 고문서, 도자공예, 목공예 분야의 보물 등 지경문화재를 중심으로 100여 점을 전시한다.

일시 5월 20일(금)-8월 7일(일) 오전 9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 관람료 무료 | 문의 02-724-0274-6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작은 전시

<조미수교와 태극기>

올해는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40주년이 되는 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태극기 도안은 조미수교 조인식 때 고안된 국기이자 가장 오래된 태극기 도안이다. 한미수교의 역사적 의의와 한미동맹의 현재적 의미를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시 5월 13일(금)-7월 7일(목) 오전 10시-오후 6시(수-토요일 오후 9시까지) | 장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층 로비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703-9200



전시 <우리는 초록 분위기를 사랑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느 시기보다 식물 문화가 유행하는 요즘이다. 식물을 사랑하는 만큼 식물의 세계를 이해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작품을 준비했다.

일시 5월 3일(화)-6월 5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7시 30분 (월요일 휴관) | 장소 KT&G 상상마당 홍대 갤러리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30-6229



어린이날 100회 기념 특별전

<우리 모두 어린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100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특별전시 <우리 모두 어린이>를 개최한다.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외국의 근현대사에서 인류에게 기쁨과 슬픔, 감동과 울림을 준 어린이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일시 4월 22일(금)-7월 17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수-토요일 오후 9시까지) | 장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 전시실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703-9200



어린이 놀이문화 체험전시 <우리 같이 놀자>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33종의 어린이 놀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같이 놀자>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서울 사람들의 세대별 어린 시절 놀이문화를 재현하고 공유하는 세대공감 전시로,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에게는 추억이, 지금의 아이에게는 새로운 놀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일시 5월 4일(수)-9월 25일(일) 오전 9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 장소 서울생활사박물관 기획전시실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399-2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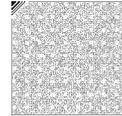


전시 <청계천 경류유遊장場: 청계천에서

보고, 놀고, 산다>

청계천 복원 16주년을 맞아 청계천박물관이 서울아카이브사진가그룹의 작가 8명과 함께 하는 기획 전시다. 변화를 거듭하는 현재 서울의 모습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

일시 5월 4일(화)-10월 3일(월) 오전 9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 장소 청계천박물관 기획전시실 | 관람료 무료 | 문의 02-2286-3410



전시 <언커머셜(UNCOMMERCIAL): 한국 상업사진, 1984년 이후>

사진이 지닌 실용성은 사진의 예술적 가치를 의심하는 근거 중 하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용적 특질로부터 멀어진 예술사진과 달리 목적 지향성을 긍정함으로써 사진의 다른 역할을 모색해 온 상업사진의 이야기와 만난다.

일시 4월 8일(금)-6월 26일(일) 오전 11시-오후 7시(월요일 휴관)
|장소 일민미술관 1, 2, 3 전시실 및 프로젝트 룸 |관람료 7천 원(학생 5천 원) |문의 02-2020-2050



연극 <돌아온다>

“여기서 막걸리를 마시면 그리운 사람이 돌아옵니다.” 경기도 외곽, 시골 마을에 ‘돌아온다’는 이름의 식당이 있다. 사람들은 날마다 그 식당에 와서 막걸리를 마시고 간다. 그것은 진한 기다림이며 그리움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인근 야산 절에 새로 온 주지스님이 식당을 찾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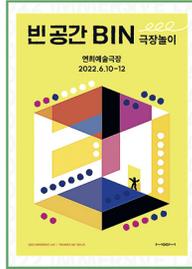
일시 5월 7일(토)-6월 5일(일) 화-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후 2시, 토요일 오후 2시-8시, 일요일 2시(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대상 14세 이상 |관람료 R석 7만 원, S석 5만 5천 원, A석 4만 원 |문의 02-747-0507



연극 <고래>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 떠 있는 북한 잠수정 속. 조장과 기관장, 무전장이 임무를 위해 육지로 올라간 저격수들을 기다리고 있다. 임무를 마친 저격수들이 잠수정으로 들어오고 임무 완수 보고 후 다시 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그때, 한국 어선이 뿌리고 간 공치잡이 그물이 잠수정의 추진 날개에 휘말리고 만다.

일시 5월 19일(목)-6월 5일(일) 화-금요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 |장소 연우소극장 |관람료 일반 3만 원, 문화예술인 및 재관람 1만 5천 원 |문의 02-744-7090



전시 퍼포먼스 <빈공간, 극장놀이>

몸플레이가 제작한 이번 작품은 도심 속 빈 공간에서 ‘배우’와 ‘관객’이 만나면서 그 공간이 가지는 이야기를 함께 찾고 만들어나가는 ‘관객 참여형’ 전시 퍼포먼스다.

일시 6월 10일(금)-12일(일) 금요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7시 |장소 연희예술극장 |대상 8세 이상 관람 |관람료 3만 원 |문의 010-2368-3437



신현식의 아쟁 연주회 <시우>

양상블시나위의 리더이자 아쟁 연주자 신현식의 공연이다. 김덕수 명인, 무속 장단으로 구성된 새산조 전통을 녹여내는 바이올리니스트 허희정과의 양상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아쟁 음악의 멋을 선보인다.

일시 6월 16일(수) 오후 8시 |장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관람료 2만 원(학생 50% 할인) |문의 02-580-3300



창작 뮤지컬 <태양의 노래>

뜨거운 태양 아래 서핑을 즐기는 소년 하람은 어두운 달빛 아래서 기타를 메고 노래하는 소녀 해나를 만난다. “항상 지켜보고 있었어. 남자친구는 없어.”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한 하람은 꿈을 노래하는 해나에게 금세 설레기 시작하고, 두 사람은 밤이 되면 찾아오는 달콤한 데이트에 즐겁기만 하다.

일시 5월 3일(화)-6월 26일(일) 화-금요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2시-6시 30분(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한전아트센터 |관람료 VIP석 14만 원, R석 12만 원, S석 8만 원 |문의 02-2105-8133

SEOUL SOUND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11시
서울문화재단 11개 창작공간에서 만나는 예술공감 콘서트

서울 스레인지11

📍 2022.6~8 📍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agazine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적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독자엽서 링크
url.kr/wgl4zd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대학로예술극장,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북서울시립미술관, 블루스퀘어, 삼일로창고극장,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 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잠실창작스튜디오, 종량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등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온라인 독자 엽서

심유진 님(서울시 서초구)

1. [문화+서울]에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번 호도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이슈의 <공예작가와 고객을 연결하는 익숙하지만 새로운 지원 방식, 아트마켓 에스스토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동안 공예품은 다른 예술작품에 비해 만나기 다소 어려웠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작가와 관객 혹은 고객을 연결하며 서로 윈윈(win-win)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새로웠어요.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월간지 기사의 경우 피치 못하게 끝난 공연이나 행사에 대한 후기가 많은 것 같아 아쉬워요. 그래서 곧 진행을 앞두고 있는 행사에 대한 예고성 기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편집 후기

[문화+서울] 담당자로 합류하게 된 22년 6월, 문뜰이 앞으로도 안녕해야 할 텐데. 안녕, 문뜰! 연재인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문화+서울] 발행 17주년을 맞는 6월, 문뜰은 안녕하다! 안녕, 문뜰! 김영민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안녕, 새로 시작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송지나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2005년 6월 8일 창간한 [문화+서울]의 17주년을 축하합니다. 20주년 기념호, 나올 수 있겠죠?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한 달이 이렇게 길다니! 하루가 이렇게 짧다니! 장보영 객원 기자

[문화+서울]도,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존재하는 주체입니다. 장영수 객원 기자

인문
사상
재단

서울문화재단



QUAD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QUAD

새로운
가능성을
열 - 다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
2022.07. 개관



공연창작집단 사람 <숨_BREATHE> 35분 분량의 현대 서커스/거리예술 |
2022 | 사진 용작가

테마 토크

문화예술로 보는 디아스포라,
낯선 땅에서 존재의 가치를 묻다

이슈 1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인 국악

이슈 2

지구와 예술_handshaking

문화인

드래그 아티스트 모지민

6월의 서울문화매뉴얼